



인문한국어(K)지원사업 | 조흥·자유·통일의 통일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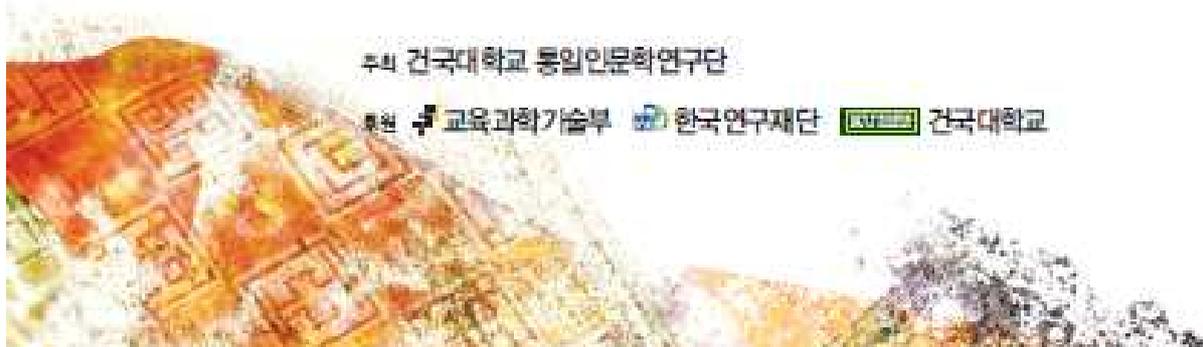
제3회  
국내학술  
심포지엄

# 코리언의 공통성 연구와 조사방법론

2012. 12. 15(토) 13:00 ~ 17:30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01호

주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건국대학교



## 【프로그램】

### ◀개 회▶ 13:00-13:10

진행 : 김종근(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개회사 : 김성민(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

### ◀제1부▶ 13:10-14:50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비교연구**

사회 : 이재승(건국대 법학과 교수)

발표 1 : 코리언의 인지적·신체적·정서적 정체성 비교 | 박민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발표 2 :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및 국민정체성 비교 |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토론 : 반병률(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 ◀휴 식▶ 14:50-15:00

### ◀제2부▶ 15:00-16:40      **코리언의 분단-통일 의식 비교연구**

사회 :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발표 1 :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코리언의 인식 비교 | 박종성(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발표 2 : 분단의 책임과 분단극복의 정책적 방향 비교 | 김종근(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토론 :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제3부▶ 16:40-17:30      **코리언의 민족정체성·분단-통일의식 심층조사연구방법론**

사회 : 서유석(호원대 교양학부 교수)

발표 : 코리언의 민족공통성과 심층조사연구방법론 |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 민족정체성과 분단-통일의식

토론 : 김귀옥(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 **【목 차】**

### **1부    코리아인의 민족정체성 비교연구**

코리아인의 인지적·신체적·정서적 정체성 비교	2
코리아인의 민족정체성 및 국민정체성 비교	16

### **2부    코리아인의 분단-통일 의식 비교연구**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코리아인의 인식 비교	33
분단의 책임과 분단극복의 정책적 방향 비교	42

### **3부    코리아인의 민족정체성·분단-통일 의식 심층조사연구방법론**

코리아인의 민족공통성과 심층조사연구방법론: 민족정체성과 분단-통일 의식	57
---	----

## 1부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비교연구



# 코리언(Korean)의 인지적 · 정서적 · 신체적 정체성 비교연구

박민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1. 들어가며 : 설문조사 설명 및 민족정체성의 세부 분류

### 1) 비교연구의 기초가 된 설문조사의 설명

‘코리언’의 정체성을 다루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민족정체성’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맥락 하에 특정한 잣대를 가지고 그것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혈연·언어·문화·정서와 관련된 항목 중 어떤 특정 요소를 선택하여 어느 정도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지, 또는 상실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쉽게 얘기해 해외 거주 코리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여 그들의 민족정체성이 해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은 정체성을 단순히 ‘동질성 내지 동일성’으로 규정하며, 그것을 벗어난 것을 이질성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이것은 한(조선)반도만의 관점을 특권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코리언의 정체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거주 코리언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코리언의 관점에서도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이 오랜 시간동안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변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변용된 코리언의 정체성의 차이들을 새로운 방식의 민족정체성을 사유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 받아들여만 한다. 나아가 이러한 바탕으로부터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은 차이와 연대에 기초한 소통, 이산과 분단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민족적 공통성에 입각한 통합의 패러다임 속에서 과정적이며 구성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코리언들의 민족정체성을 사유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은 2010년 9월 ‘민족공통성 프로젝트 TFT’를 구성하였으며, ‘가치’(이중정체성·민족적 귀속의식·남북에 대한 선호도 및 인식·통일 관련·동북아 정세 전망), ‘정서’(식민지 지배 청산·분단의 상처·거주국 및 모국의 차별로 인한 상처·친밀함), ‘생활문화’(언어·의식주·의례 및 세시풍속·가족주의·교육관·직업관)와 관련된 약 100개의 공통 설문조사 항목을 마련했다.<sup>1)</sup> 나아가 현지 거주 전문가들과의 설문조사 항목 번역 협의를 거쳐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한국(남한주민과 탈북자)에 사는 코리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sup>2)</sup> 이렇게 수행된 설문조사의 목적은 새로운 민족정체성을 사유하기 위한 이론적

1) 다만 재미 한인의 경우 다른 해외지역 거주 코리언들과는 달리 이주의 시기가 분단 이후에 집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제시대의 상처’, ‘분단의 아픔’과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항목이 빠져 약 45개의 설문조사 항목만을 구성했다.

2) 총 6개의 표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중 재미 한인을 제외한 5개 집단에게 실시된 설문조사 일시와 상세지역, 조사대상과 인원수, 조사방법, 항목 등에 대해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서문>을 참조. 또한 각국의 설문조사의 진행 전반에 대해서는 각 장의 ‘들어가며’를 참조.

## 2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비교연구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이하의 글은 이처럼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에게 수행된 설문조사 중, 특히 ‘정체성’ 관련 부분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쓰여진 글이다.

## 2)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정체성의 의미

해외 거주 코리언의 정체성을 그들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들의 민족정체성은 종족적 정체성의 요소를 기반하면서도, 해당 거주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용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해외 거주 코리언들은 거주국의 국민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지만, 이러한 거주국의 국민정체성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민족적 정체성 역시도 지니고 있다.

이때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은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측면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 연관 속에서 구성된다. 우선 인지적 정체성은 국가라는 상징체계 안에서 수행되는 특정한 사회화 과정의 결과물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해외 거주 코리언들의 경우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국가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지적 정체성이 국가의 상징체계 안에서 모두 흡수되어 전적으로 그것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의 경우 기계적인 종속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인지적 정체성은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분리의식, 곧 디아스포라의 고유한 이중정체성에서 잘 드러난다.<sup>3)</sup>

또한 민족정체성은 단지 자의식적인 인지적 정체성만으론 환원될 수 없으며, 비인지적이고 무의식적인 생활문화와 정서 등을 통해서도 구성된다. 요컨대 해외 거주 코리언들의 경우 거주국과 민족의 이중정체성인 ‘인지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코리언의 마음에 아로새겨진 정서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정서적 정체성’, 나아가 코리언들의 신체에 내면화되어 있는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요소들을 나타내주는 ‘신체적 정체성’ 역시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의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을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측면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특히 재중 조선족·재러 고려인·재일 조선인·재미 한인 등 총 4개 집단의 코리언들의 민족정체성을 앞서 말한 구분 속에서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각의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실증적인 설명, 그리고 이 세 측면에서 각각의 코리언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민족정체성의 변용들과 그것이 갖는 의미들, 마지막으로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의 전체적인 비교 및 민족정체성 이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 2. 코리언의 인지적 정체성

인지적 정체성은 거주국의 상징체계 안에서 체화되는, 즉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구성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해외 거주 코리언

3) 민족정체성 규명에 있어서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이 내놓은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정체성의 영역 구분 및 성격은 무엇보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이병수·김종균, 「코리언 정체성 연구의 관점과 방법론」, 선인, 2012, 47-52쪽을 참고

들의 인지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생각하는 ‘조국’과 ‘모국’을 동시에 물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다.<sup>4)</sup>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들의 언어 사용 맥락에서 ‘조국’과 ‘모국’을 어떤 의미로 구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조국’, ‘모국’이라는 단어(기표)에 그들 각각은 어떤 의미(기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했다. 왜냐하면 ‘조국’, ‘모국’ 등의 호칭에 대한 답변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화 과정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거주국의 사회화 체계 안으로 흡수되지 못한 ‘민족적 잔여’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코리언들이 갖는 인지적 정체성에는 거주국을 통해 습득된 ‘국민정체성’ 그리고 한(조선)반도와 연관된 ‘민족정체성’이라는 두 간극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표 1. ‘조국’과 ‘모국’ 선택>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조국선택만)	
선택국가	조국	모국	선택국가	조국	모국	선택국가	조국	모국	선택국가	조국
중국	91.9	24.9	러시아	86.8	21.8	일본	16.9	3.2	남한	85.4
조선(북)	4.0	<b>36.0</b>	조선(북)		<b>9.5</b>	조선(북)	4.1	<b>2.5</b>	북한	0.3
한국(남)	0.3	<b>8.8</b>	한국(남)	2.5	<b>15.3</b>	한국(남)	22.3	<b>40.4</b>	한반도	6.0
한반도	1.3	<b>23.9</b>	한반도	0.9	<b>36.2</b>	조선반도	29.9	<b>43.9</b>	미국	8.3
중국과 한반도	2.4	6.4	러시아와 한반도	7.7	15.0	일본과 조선반도	20.4	8.0		

위의 <표 1>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들의 ‘조국’과 ‘모국’ 선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들은 ‘조국’으로 거주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91.9%, 86.8%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으로는 24.9%, 21.8%만이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하고 있다. 반면, 앞 선 두 집단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은 ‘조국’으로 거주국인 ‘일본’을 선택하는 비율이 16.9%에 불과했으며 ‘모국’ 선택과 관련해서 3.2%로 거의 없었다.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사항은 재미 한인의 경우엔 ‘조국’ 선택과 관련된 문항만을 물어봤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 응한 재미 한인은 이민 1세대와 1.5세대가 주류를 이루었기에, 다른 해외 거주 코리언들과는 달리 조국과 모국을 구분하지 않는 우리의 언어 사용 맥락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sup>5)</sup> 결과적으로 재미 한인의 경우엔 91.7%가 조국 선택에 있어서 한반도와 연관된(남과 북, 한반도) 답변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답변이 보여주는 것은 첫째, 재미 한인을 제외하고서는 ‘조국’과 ‘모국’에 대한 그들의 선택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며, 둘째,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 그리고 재일 조선인의 조국과 모국 선택에서 차이 역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4) ‘조국’, ‘모국’이라는 단어선택에 대해서는, 모두 현지 거주 전문가들이 거주국의 언어에 맞는 단어들로 번역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한글을 아는 재중 조선족에게는 ‘조국’, ‘모국’으로, 한글을 모르는 재일 조선인에게는 ‘祖國’, ‘祖先の国(母国)’으로, 재러 고려인에게는 ‘свое родной(나의 고향)’, ‘родной предков(조상의 고향)’으로 물어보았다. 또한, 재미 한인은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faterland(조국)’만 물어보았다.

5) 이것은 설문조사의 항목선택과 진행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는 현지 거주(미국) 파트너와의 회의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다.

<표 2. '조국'과 '모국' 선택 이유>

	조국 선택 이유				모국 선택 이유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재중 조선 족	재러 고려 인	재일 조선 인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58.9	29.1	15.6	52.7	25.3	12.6	13.1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4.5	50.3	4.1	3.2	3.7	12.3	1.3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8.4	7.7	39.2	16.5	61.6	66.3	67.5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14.8	.9	20.4	26.7	9.1	2.5	8.9
나를 돌보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3.4	1.5	1.3	1.0	0.3	1.5	

<표 1>의 결과를 <표 2>의 '조국 및 모국 선택의 이유'와 관련시켜서 보면 이런 차이의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조국과 모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들은 조국을 선택한 이유로, 재중 조선족의 58.9%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를, 재러 고려인의 50.3%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를 선택하고 있다. 게다가 이 두 가지의 답변을 합치면 재중 조선족의 73.4%, 재러 고려인의 79.4%가 '태어나거나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조국을 이해하고 있다. 반면 이들은 모국을 선택한 이유로, 모두 다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를 1위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조국'과 '모국'의 의미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으며, 이런 구분 속에서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 양자를 조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집단과는 달리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는 집단은 재일 조선인이다. 그들이 조국 선택 이유로 꼽은 것은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가 39.2%이며,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가 20.4%이었다. 반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와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를 선택한 재일 조선인은 각각 15.6%와 4.1%에 불과했다. 또한 모국 선택 이유에 대해서도 67.5%가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를 선택했다. 이것은 재일 조선인의 경우 조국도, 모국도 '내가 태어났거나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재일 조선인들은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일까? 재일 조선인들이 '조국' 선택에서는 '일본'을 16.9%, '일본과 조선반도'를 20.4%가 선택하여 일본과 관련된 선택이 37.3%인 반면, '모국' 선택에서는 '일본' 3.2%, '일본과 조선반도' 8.0%로, 일본과 관련된 선택이 11.2%로 선택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것과 동시에 모국 선택 비율이 '한국(남)' 22.3%에서 40.4%로, '조선반도' 29.9%에서 43.9%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이들 또한 조국과 모국을 구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 조선인이 조국이든 모국이든 간에 '일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에 대한 귀속감이나 소속감을 거부하고 있으며, 반대로 한(조선)반도와와의 연관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결과는 재미 한인이다. 그들은 '조국' 선택 이유에 대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를 52.7%,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를 20.4%,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를 16.5%를 선택하여 총 89.6%가 '한반도'와 연관된 답변을 선택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재미 한인의 경우 '조국'은 다른 해외 거주 코리언의 경우와는 달리 '민족적·인종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따라서 <표 1>과 <표 2>의 결과비교를 정리하자면 해외 거주 코리언의 정체성은 거주국 중심의 ‘국민정체성’과 민족 중심의 ‘민족정체성’의 이중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편차는 있지만 이들 모두는 어느 정도 이러한 ‘이중정체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재미 한인의 경우 조국과 모국을 동시에 묻는 질문이 없었기에 이것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곤 하더라도 재미 한인에게도 다른 해외 거주 코리언과 동일하게 이중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재미 한인을 포함하여 해외 거주 코리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중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자신이 속한 민족의 호칭: 총 4개 집단>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선택명	비율	선택명	비율	선택명	비율	선택명	비율
중국 조선족	89.6	러시아 고려인	70.6	재일 조선인	26.1	미국인	1.3
한(조선) 민족	3.0	한(조선) 민족	0.3	재일 한국인	43.3	아시아계 미국인	5.1
조선민족	6.7	조선민족		한(조선) 민족	2.2	한국계 미국인	43.8
고려인 (민족)	0.7	고려인	27.6	조선민족	3.5	한국인	49.8
				조선인/한국인	1.9/3.2		

<표 3>을 살펴보면 자신의 호칭에 대해 거주국과 민족을 공존시키는 명칭을 대부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을 순서대로 표현하면 재중 조선족의 경우 ‘중국 조선족’을 89.6%, 재러 고려인의 경우 ‘러시아 고려인’을 70.6%, 재일 조선인의 경우 ‘재일 조선인/재일 한국인’을 69.4%, 재미 한인의 경우 ‘아시아계 미국인/한국계 미국인’을 48.9%의 순서로 선택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이란 민족적으로는 한국계이지만, 미국 국민이라는 소속감 역시 동시에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답변비율은 곧 해외 거주 코리언들의 경우 모두 거주국과 민족의 이중적인 공존을 인지적 정체성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지적 정체성과 관련된 지표를 보여주는 <표 1>, <표 2>, <표 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해외 거주 코리언들은 거주국 중심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중심의 민족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중정체성을 보여준다. 둘째,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은 높은 국민정체성을 가진 반면, 재일 조선인은 매우 약한 국민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재미 한인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반면 인지적 차원의 민족정체성은 남북을 포함하여 한(조선)반도라는 지역으로의 귀속성 또는 소속감이라는 의

- 6) 설문조사의 응답한 재미 한인의 경우, 총 315명 중 26명만이 ‘미국’ 출생이다. 비율로 따지자면 약 92%가 ‘한반도’(특히 남한)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내가 태어난 곳’의 지역은 곧 ‘한반도’인 셈이다.
- 7)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설문조사에 응한 재미 한인의 경우 1세대와 1.5세대가 약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요인에서도 기인할 것이다. 다만 ‘조국’ 선택의 항목에서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61세 이상’의 2.4%가 선택한 반면 ‘41세-60세’는 4.3%, ‘21세-40세’는 12.7%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한 선택 항목에서도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란 답변이 ‘61세 이상’ 0%에서 ‘21세-40세’에서는 6.3%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세대가 낮아질수록 거주국 중심의 국민정체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미에서 제일 조선인이 가장 높으며 재미 한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의 순서로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도식적으로 해외 거주 코리언들 중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은 강한 국가정체성으로 인하여 민족정체성은 약하다’, 반면 ‘재일 조선인과 재미 한인은 여전히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그러나 민족정체성은 이와 같은 인지적 정체성 차원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민족이라는 집단이 보여주는 자기 정체성은 오랜 역사 동안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환경과의 ‘생활문화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민족정체성은 그들이 자각적으로 규정하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 आरोसा겨진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연관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3. 코리언의 정서적 정체성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은 단순히 인지적 정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민족의 정체성은 생활문화적이고 사회심리적인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중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지적 정체성과는 달리 ‘심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정체성인 ‘정서적 정체성’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이 정서적 정체성은 거주국의 주류 민족과의 ‘다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거주국 내 기타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가?: 총 3개 집단><sup>8)</sup>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항상 느낀다	40.1	7.4	22.3
가끔 느낀다	44.4	50.3	61.1
느끼지 못한다	15.5	42.3	16.2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주류 민족들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는지를 물었다. 위의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름’을 가장 많이 느끼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재중 조선족(84.5%) → 재일 조선인(84.4%) → 재러 고려인(57.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체적인 수치로 보아 재중 조선족과 재일 조선인의 비중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그 느낌의 강도를 본다면 재중 조선족은 ‘항상 느낀다’가 40.1%인 반면, 재일 조선인은 22.3%로, 재중 조선족의 ‘다름’에 대한 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름의 감정을 통해 구성되는 정서적 정체성은 표면적으로는 ‘재중 조선족 → 재일 조선인 → 재러 고려인’의 순서로 낮아지고 있다.<sup>9)</sup> 따라서 이

8) 재미 한인의 경우엔 설문조사 항목에서 빠졌다.

9) 이런 결과는 거주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감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재중 조선족은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2.2%나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재러 고려인과 재일 조선인이 뒤를 이었다. 재러 고려인 중에 러시아인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7.8%였으며, 재일 조선인 중 일본인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2.4%였다. 그 느낌의 강도에서 따져 보면 재중 조선족은 ‘매우 그렇다’가 37.4%나 되었으며, 재일 조선인은 ‘매우 그렇다’가 22.3%로 재러 고려인들의 15.0%보다 높았다. 이것은 재러 고려인이 재일 조선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국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느끼는 하지만, 그 강도에서는 재일 조선인이 재러 고려인보다

런 결과는 앞에서 본 인지적 측면에서의 민족정체성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미 한인을 포함한 정서적 정체성은 순서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정서적 정체성은 다름의 감정과 동일한 맥락에서 민족적 소속감 또는 일체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정체성의 순서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인 <표 5>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5. 타민족과 만날 때 코리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가?>

답변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알리고 싶다	75.8	69.0	72.9	63.5
감추고 싶다	1.7	0.3	6.7	
상관없다	22.6	30.7	18.2	36.5

재미 한인을 포함하는 <표 5>을 살펴보면 ‘자신이 코리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답변한 비율은 재중 조선족(75.8%) → 재일 조선인(72.9%) → 재러 고려인(69%) → 재미 한인(63.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상관없다’는 답변은 재미 한인(36.5%) → 재러 고려인(30.7%) → 재중 조선족(22.6%) → 재일 조선인(18.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재미 한인의 경우엔 다른 해외 거주 코리언들에 비해 적극적 의미에서 민족적 소속감은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타자와의 ‘다름’의 정서를 통해 구성되며 이 ‘다름’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또는 재미 한인처럼 같은 민족에 대한 정서적인 소속감 내지 일체감으로 형성되는 정서적 정체성의 순서는 대략적으로 ‘재중 조선족 → 재일 조선인 → 재러 고려인/재미 한인’의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다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는 정서적 정체성은 서로 상반되는 ‘수동적 정서’와 ‘능동적 정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 거주국에서 코리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있다	40.7	42.3	70.7	60.3
없다	59.3	55.8	27.7	39.7
무응답		1.8	1.0	

<표 6>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다름의 감정’이 발생하게 상반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차별의 경험에 대한 답변비율을 살펴보면 재일 조선인(70.7%) → 재미 한인(60.3%) → 재러 고려인(42.3%) → 재중 조선족(40.7%)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차별의 경험을 놓고 볼 때 재일 조선인과 재미 한인의 60% 이상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위의 <표 4>의 순서와 흥미롭게도 다른 결과가 등장했다. 왜냐하면 ‘차별의 경험’만큼 ‘다름의 정서’를 즉각적으로 촉발시키는 것도 찾기 힘들 것인데, 다름의 정서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재중 조선족의 경우엔 차별의 경험이 다른 코리언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름의 정서’는 단순히 하나의 정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각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경험 속에서 이중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의 다름의 감정은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의 경우엔 다른 민족과의 ‘다름’을 자신들 속으로 포용하며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전화시킨 경우”<sup>10)</sup>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의 경우엔 “다른 집단과의 다름을 ‘차별·소외·무관심’으로 경험하”<sup>11)</sup>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인지적 정체성에서는 재일 조선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정체성에서는 그 순서가 역으로 뒤바뀌어 재중 조선족이 더 높은 것일까? 우선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해외 거주 코리언들이 살고 있는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거주국에서의 민족적 지위와 역할·거주국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체험 등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수민족의 자치주를 인정하는 재중 조선족 및 거주국에서의 월등한 민족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재러 고려인의 경우엔 능동적인 정서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거주국에서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던 재일 조선인, 그리고 주류민족과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지위와 민족적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재미 한인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정서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해외 거주 코리언들이 거주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정서적 정체성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표 7. 코리언(Korean)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답변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찬란한 문화(한글, 옷, 음식)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3.9	23.8	55.1	30.2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15.4	66.9	3.0	27.6
월드컵4강, 한강의 기적과 같은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3.4	1.1	1.5	3.2
약소국이지만 민족적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17.3	5.2	28.3	17.5

<표 7>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찬란한 문화’와 ‘성실함과 근면함’에 집중되는 답변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중 조선족과의 경우엔 ‘찬란한 문화’를 63.9%가 자랑스러운 이유로 꼽고 있으며, 재러 고려인의 경우엔 ‘성실함과 근면함’(66.9%)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 자치주를 인정받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재중 조선족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제이주와 재이주의 험난한 경험 속에서도 성실함과 근면함을 무기로 모범적인 소비에트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재러 고려인의 민족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재일 조선인의 경우엔 거주국의 폭력적인 국가주의 및 억압정책에 대항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자리잡게 된 ‘민족적 자존심’이 28.3%로 다른 코리언들과는 달리 2위를 차지하

10)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이병수·김종균, 「코리언 정체성 연구의 관점과 방법론」, 선인, 2012, 51쪽.

11)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이병수·김종균, 「코리언 정체성 연구의 관점과 방법론」, 선인, 2012, 51쪽.

고 있다. 또한 이민 초기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 허드렛일부터 담당하여 성공하게 되었지만, 그것과 함께 미국사회의 인종적 위계질서로부터 끊임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간직하게 되었던 재미 한인의 경우엔 역시나 ‘성실함과 근면함’(27.6%) 및 ‘민족적 자존심’(17.5%)이 주된 정서적 정체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정리해보자. 정서적 정체성과 관련된 지표인 <표 4>, <표 5>, <표 6>, <표 7>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코리언들의 정서적 정체성은 인지적 정체성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인지적 정체성에서는 가장 큰 강도를 보여줬던 재미 조선인 대신에 정서적 정체성의 측면에서는 재중 조선족이 가장 강한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정체성의 순서는 ‘재중 조선족 → 재미 조선인 → 재러 고려인/재미 한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정서적 정체성은 ‘능동적 정서’와 ‘수동적 정서’의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에는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이, 후자에는 재미 조선인과 재미 한인이 해당한다. 셋째, 이러한 구분은 해외 거주 코리언들이 겪은 거주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생성된다. 이것은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 거주국에서의 민족적 지위와 역할, 거주국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체험 등이 큰 요소로 작동한다. 넷째, 따라서 해외 거주 코리언들의 정서적 정체성에는 거주국의 상이한 경험에 따른 다양한 지표들이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의 정서적 정체성에는 ‘찬란한 문화’와 ‘성실함과 근면함’이 각각 작동하고 있으며, 재미 조선인과 재미 한인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강하게 ‘민족적 자존심’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 와서 해외 거주 코리언들이 보여주는 인지적 정체성과 정서적 정체성의 상이한 결과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인지적 정체성과 정서적 정체성의 간극은 일반적인 조사와 판단만으론 해명하기 어렵다. 사실 정서적 정체성은 인지적 정체성보다 자신의 몸에 아로새겨져서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정체성의 또 다른 차원이 매개될 필요가 있다.

#### 4. 코리언의 신체적 정체성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코리언들의 신체에 새겨진 민족의 일상적인 흔적에 대해 물었다. 이것은 곧 ‘신체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해외 거주 코리언들에게는 언어·혈연·생활풍습 등과 같은 민족의 일상적 생활문화가 신체에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 민족의 일상적 삶의 문화는 몸과 마음에 흔적을 남기며, 이를 공유하는 집단들의 유대감을 자연스럽게 형성시킨다. 이것이 신체적 정체성의 의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상적 삶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언어’에 대해 물었다.

<표 9. 집에서 일상적인 대화에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미 조선인	재미 한인
한국어	70.4	1.8	1.9	64.8
현지어	4.0	53.4	81.2	4.4
섞어서 쓴다	25.6	43.6	15.6	25.7

위의 <표 9>에서 보듯이 일상언어로 한(조선)어를 사용하는 답변비율은 재중 조선족, 재미

한인,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자세히 보자면 재중 조선족의 경우 한(조선)어만 쓰는 비율은 70.4%, 현지어는 4.0%이며, 재미 한인 역시 이와 비슷하게 한(조선)어만 쓰는 비율은 64.8%, 현지어는 4.4%에 불과했다. 그런데 재러 고려인과 재일 조선인의 경우엔 현지어만을 쓰는 비율이 각각 53.4%, 81.2%에 달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는 한(조선)민족의 정체성 양태로 보아 신체적 정체성이 가장 높은 것은 '재중 조선족 → 재미 한인 → 재러 고려인 → 재일 조선인' 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족적 생활양식의 또 다른 지표인 한복, 김치, 전통명절, 관혼상제 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10. 한복, 김치, 전통명절, 관혼상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	탈북자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① 한복을 입는다면 언제 입는지 모두 표기해주세요	특별한 행사	17.4	<b>73.4</b>	<b>33.1</b>	<b>41.7</b>	<b>35.9</b>
	명절 때	<b>36.7</b>	34.7	6.4	1.9	29.5
	가족모임	5.5	10.1	2.1	1.0	2.5
	안 입는다	<b>45</b>	10.1	<b>57.1</b>	<b>47.1</b>	<b>39.7</b>
	일상적으로	0.9	3.4	0.6	3.5	
② 밥상에 꼭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그렇다	55	34.7	32.5	12.7	17.1
	그렇다	<b>33.9</b>	<b>45.5</b>	<b>54.6</b>	24.2	<b>41.0</b>
	아니다	4.6	11.1	6.4	<b>40.8</b>	13.7
	상관없음	6.4	8.8	6.4	21.0	28.3
③ 우리 가족이 쇠는 전통명절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설날	86.2	93.9	87.4	37.3	83.8
	추석	78.0	79.8	63.5	34.4	68.9
	정월대보름	32.1	79.5	9.2	6.4	13.7
	한식(청명)	32.1	64.3	47.5	1.3	2.2
	단오	26.6	62.3	15.3	1.9	1.6
④ 관혼상제를 전통풍속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22.0	37.0	18.4	3.2	
	가급적 그렇게 해야 한다	37.6	<b>46.1</b>	<b>70.9</b>	<b>61.1</b>	
	그럴 필요가 없다	<b>39.4</b>	16.8	10.1	34.1	
⑤ 타민족과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절대 반대		15.8	3.1	3.2	10.2
	가급적 안하는 게 좋다		<b>48.1</b>	35.3	28.7	44.8
	상관없다		36.0	<b>61.7</b>	<b>67.2</b>	<b>45.1</b>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의 민족정체성을 신체적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위의 <표 10>을 살펴보면, '한복'을 가장 많이 입는 해외 거주 코리언은 '재중 조선족 → 재미 한인 → 재일 조선인 → 재러 고려인'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밥상

에 꼭 김치가 있어야 한다'는 코리언은 '재러 고려인 → 재중 조선족 → 재미 한인 → 재일 조선인'의 순이었다. 또한, '전통명절'을 가장 많이 지내는 코리언은 '재중 조선족 → 재러 고려인 → 재미 한인 → 재일 조선인' 순이었으며, '관혼상제를 전통풍속에 따라 해야 한다'는 코리언은 '재러 고려인 → 재중 조선족 → 재일 조선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재중 조선족 → 재미 한인 → 재러 고려인 → 재일 조선인'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생활풍속이나 관습, 의복 및 의식 생활을 많이 유지하고 집단은 재중 조선족이었으며 그 다음이 재미 한인과 재러 고려인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재일 조선인 순이었다.<sup>12)</sup>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거주국에서의 생활환경 조건 등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재중 조선족의 경우엔 자신들의 생활-풍속 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공간이 된 '조선족 자치주'가 무엇보다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연변으로 대표되는 조선족 자치주를 통해 재중 조선족은 자신들의 언어, 풍속 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체적 정체성의 측면에서 가장 약한 재일 조선인의 경우엔 역사적 경험이 가장 원인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재일 조선인의 경우 폭력적인 국가주의에 바탕을 둔 한(조선)민족의 억압적인 동화정책을 고스란히 받았기에, 말과 글을 포함한 민족적 생활양식들의 보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재러 고려인의 경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는 1930년대의 중앙아시아로의 혹독한 강제이주와 1990년대의 연해주로의 재이주라는 두 번의 이주경험 속에서도 생활풍습적 기반들이 크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추해보건대, 모든 것이 달라진 중앙아시아에서 말과 언어는 소비에트 시민으로의 적응을 위한 생존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재러 고려인은 자신들의 이주촌을 중심으로 하여 한(조선)민족의 혈연·문화적 요소를 강하게 지켜나가지 않았을까하고 짐작된다.<sup>13)</sup>

또한 재미 한인의 경우 앞 선 해외 거주 코리언들과는 달리 이주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한(조선)민족의 생활양식이 상대적으로 온전히 유지, 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의 경우엔 '코리아 타운'과 같은 같은 민족의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었으며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도 이러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언어·의복·음식·의례와 같은 민족적 삶의 양식들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리언의 신체적 정체성과 관련된 <표 9>, <표 10>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코리언들의 신체적 정체성은 인지적 정체성, 정서적 정체성과도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신체적 정체성의 순서는 대략적으로 '재중 조선족 → 재미 한인/재러 고려인 → 재일 조선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신체적 정체성 역시도 거주국의 역사적 조건과 경험들이 큰 형성요인으로 작동한다. 셋째, 신체적 정체성을 판단하는 요소들 중 그 각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순위가 조금씩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거주국의 역사적 삶의 환경 속에서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요소들이 신체적 차원에서 각인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두 번에 걸친 험난한 이주의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은 다 잃었어도 그들의 환경 속에서 필연적으로 각인되었던 '혈연'과 '문화'가 신체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12) 한 가지 염두에 뒀야 할 사항은 직접적인 비교 항목이 공통적이기 않기에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갔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13)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박민철·정진아, 「재러 고려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 선인, 2012, 243-250쪽을 참고.

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재러 고려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민족정체성은 거주국에서의 역사적 체험 및 주류민족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변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정체성을 인지적 정체성·정서적 정체성·신체적 정체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중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의 민족정체성은 각기 다른 양상들을 보이면서 그 강도의 순서가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코리언들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정체성을 서열화시켜보자.

<표 11. 코리언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정체성의 순위 정리>

민족정체성	인지적 정체성	정서적 정체성	신체적 정체성
1	재일 조선인	재중 조선족	재중 조선족
2	재미 한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재러 고려인
3	재러 고려인	재러 고려인/재미 한인	
4	재중 조선족		재일 조선인

대체적으로 인지적 정체성의 측면에서 민족정체성은 ‘재일 조선인 → 재미 한인 → 재러 고려인 → 재중 조선족’ 순으로 차츰 낮아진다고 할 수 있으나, 정서적 정체성의 측면에서 보면 민족정체성은 오히려 ‘재중 조선족 → 재일 조선인 → 재러 고려인/재미 한인’ 순으로 낮아지면서 그 순서가 다시 뒤바뀌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체성의 측면에서 민족정체성은 ‘재중 조선족 → 재미 한인/재러 고려인 → 재일 조선인’ 순으로 낮아지면서 또한 순서가 뒤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은 인지적 정체성, 신체적 정체성, 정서적 정체성 어느 하나로 환원되거나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은 각각의 측면에서 그 강도가 달라질뿐더러, 세 가지 측면이 중층적으로 결합하면서 복합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5. 나가며: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형성 특징

위에서 보듯이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은 거주국에서의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일정한 변형을 거치며, 복잡한 결정구조를 통해 결과적으로 나름의 독특한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이 각각의 독특한 차이들을 보이면서 일정한 변형을 겪는다는 것은 단순히 민족정체성의 약화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나 주류종족과의 상호 역학적 관계 속에서 민족정체성의 다양한 요소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이자, 다양한 방식으로 민족적 유대의 끈과 ‘공통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동질성과 이질성으로 표현되는, ‘한(조선)반도 패러다임(한반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코리언들 각각이 자신들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인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민족정체성의 양상들을 추적하고, 그것의 결정구조를 파악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 코리언 중 재중 조선

족은 높은 정서적 정체성과 신체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정체성에서는 가장 낮은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재러 고려인은 높은 신체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정체성에서 낮은 강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일 조선인은 인지적 정체성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체성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미 한인은 높은 인지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서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코리언들은 왜 이런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것일까? 민족정체성과 관련되어 각각의 코리언들이 보여주고 있는 순위와 강도는 그들이 경험한 이산(離散, diaspora)과 이주의 체험들 및 거주국에서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어-생활문화-풍속이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거주국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주류종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코리언들이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적으로 재중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연변에서 '조선족 자치주'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면서 살아왔다. 따라서 재중 조선족은 한(조선)어와 한(조선)글을 사용하며 대부분의 민족적 생활양식들을 지켜올 수 있었다. 또한 조선족 자치주라는 삶의 기반 하에 중국의 주류민족인 한(漢)족과의 다름의 감정, 그것과 대비해 한(조선)민족에 대한 민족적 소속감과 일체감을 간직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재중 조선족은 자신의 민족문화를 대부분 유지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에서 신체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면서도 거기에 덧붙여 '소수민족'이라는 정서적 정체성 역시도 강하게 가질 수 있었다. 반면 조선족 자치주의 영향아래 중국 국가에 대한 반감이 적었고 오히려 중국 공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러 고려인들은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이후 모범적인 소비에트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성공한 소수민족으로서 거주국에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삶을 스스로 만들어왔다. 그 과정 속에서 재러 고려인들은 비록 말과 글을 잃어버리는 대신, 성공한 소수민족이라는 배경 하에 자신들의 이주촌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문화들을 보존하면서 '신체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민족정체성을 형성해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제이주와 재이주라는 고된 경험 속에서도 성공적인 적응력으로 인해 '성실과 근면함'으로 대표되는 정서적 정체성 역시도 상대적으로 높게 가질 수 있었다.<sup>14)</sup>

그러나 재일 조선인은 앞 선 두 코리언들과는 조금 다른 역사적 체험을 갖는다. 거주국인 일본은 재일 조선인을 억압적인 국가통치 양식 아래에서 끊임없이 배제시켰으며, 그들에게 코리언의 민족적 생활양식과 정서들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재일 조선인은 억압과 강요를 오히려 한(조선)반도로 귀속되는 민족적 자각의식을 통해 방어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재일 조선인은 인지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면서, 강요와 탄압으로 인한 가장 낮은 신체적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재중, 재러, 재일 코리언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집단은 재미 한인이다. 재미 한인은 주로 1960년대를 기점으로 자발적인 이민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해외 거주 코리언들과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미 한인은 이주의 시기가 짧았을뿐더러 코리언 타운과 같은

14) 물론 재러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은 재중 조선족과 재일 조선인에 비해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재러 고려인들은 말과 글을 제외하고는 고유한 민족문화양식들을 재중 조선족처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중 조선족과는 달리 타종족에 대한 다름의 감정이나 러시아 민족주의에 대한 반감이 적었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기에 다른 코리언들과는 달리 민족적 생활양식을 강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전통적인 다민족 사회인 미국이라는 조건 하에서 한(조선)민족에 대한 민족적·종족적 자의식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인종적 위계질서과 차별로 인해 민족적인 정서들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재미 한인의 경우 인지적·신체적 정체성은 강하게 가질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정서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비교연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알려준다. 첫째, 기존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을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지금까지 민족정체성은 특정한 집단이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속성의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이때 정체성의 지표들은 ‘보존이나 해체냐’라고 하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갇히게 되며, 민족 동일성 회복만을 주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럴 경우 각각의 코리언들의 역사적 경험과 체험 등을 도외시하게 되며, 추상적인 지표로서의 민족정체성만을 그들에게 강요할 공산이 커진다. 따라서 한(조선)반도를 넘어 각각의 코리언들이 수행한 민족정체성의 변용과 차이를 모두 온전히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민족공통성’<sup>15)</sup>의 의미이다.

둘째, 따라서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을 과거회귀적인 개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적극적인 목표점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코리언들은 정치체제와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각기 나름의 영역에서 정체성을 변형시켜 왔다. 그와 동시에 거주국에서의 고된 경험 속에서도 한(조선)민족과의 민족적 유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주어진 조건에서 다양한 방식과 방향으로 그것들을 계승·발전시키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민족정체성은 고정불변한 동질성이 아니라, 동태적인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로부터 새로이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새롭게 구성되는 민족정체성은 단순히 동질성의 지표 측정수단이 아닌, 모든 코리언의 민족적 소통과 연대를 가능케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치로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끝으로 앞 선 논의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으로서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을 분단극복과 통일로 나아가는 근원적 출발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분단극복과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들을 포함하여 해외 각국에 퍼져 있는 코리언들 모두를 매개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매개의 고리’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민족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기 다르지만 서로서로 닮아 있다’고 하는 민족정체성의 의미에서 각기 분열된 코리언들을 매개할 수 있는 지점이자 출발점으로서 민족정체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15) ‘민족공통성’ 개념은 민족정체성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도를 지닌 용어다. 민족공통성이란 용어는 민족정체성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여러 집단의 관계망 속에서 새롭게 창조해가는 ‘생성적 공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공통성’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이병수·김종균, 『코리언 정체성 연구의 관점과 방법론』, 선인, 2012, 37-42쪽, 그리고 같은 책, 김성민·박영균, 『코리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협력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 선인, 2012, 317-318쪽을 참고.

## 코리언의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비교연구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 교수)

### 1. 들어가는 말 : 코리언의 이중정체성에 대한 이해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한(조선)민족의 민족 정체성과 거주국의 국민 정체성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지닌 존재다. 이는 ‘중국 조선족’, ‘일본 조선인’, ‘러시아 고려인’, ‘미국 한인’(Korean American)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드러난다.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자신을 ‘중국 조선족’이나 ‘러시아 고려인’ 등으로 칭할 때, 민족적으로는 한(조선)민족에 소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거주국의 국민정체성을 지닌 이중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이다. 민족과 국가라는 두 개의 축을 넘나드는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이러한 이중정체성은 한(조선)반도적 배경과 거주국의 정치문화적, 사회경제적 상황의 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중정체성의 양상은 이주배경이나 거주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한(조선)반도와 맺는 연관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드러낸다.

코리언의 이중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적 관점은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 민족주의적 관점이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거주국 국민정체성과 관계없이 그들을 한 민족 정체성으로 단일하게 포섭한다면, 탈민족주의적 관점은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 어느 한 쪽에 동질화되지 않고, 양자가 교차되고 중첩되는 디아스포라의 혼종적 정체성(혹은 정체성의 해체) 자체에 보다 주목한다. 전자가 혈연적·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한 ‘코리언’에 방점을 둔다면, 후자는 민족의 경계를 교란시키는 ‘디아스포라’에 방점을 둔다. 이러한 두 가지의 대립적인 관점은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지닌 이중정체성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코리언의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한(조선)민족 소속이지만 거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한 디아스포라의 이중정체성을 간과하고 있다면, ‘디아스포라의 탈민족적 의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디아스포라의 유동적, 복합적 정체성에만 주목함으로써 코리언들이 경험한 식민과 분단 그리고 이산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간과하고 있다.<sup>1)</sup>

또한, 최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이중정체성을 민족정체성과 별개의 ‘제3의 정체성’으로 이해하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은 결코 우왕좌왕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6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중국 땅의 다양한 문화를 결합시킨 중국 조선족만의 독특한 독립정체성을 형성하였”<sup>2)</sup>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그러나 중국문화나 한(조선)민족 문화와 차별화된 중국 조선족만의 ‘제3의 정체성’은 민족정체성과 다른 독립정체성이 아니다. 원래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그 “이중문화 신분 때문에” 한(조선)반도에서 기원한 민족정체성의 독특한

1) 이병수, 김종균, 「코리언 정체성 연구의 방법론」,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27-28쪽.

2) 박정균, 「중국조선족 정체성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1), 99쪽.

변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를테면 중국 조선족은 ‘조선문화’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중국의 한족이나 기타 소수민족과 구별되며, 또 ‘중국문화’적 요소로 말미암아 남한이나 북한 또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와도 구별된다.<sup>3)</sup> 요컨대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은 한(조선)민족 정체성과 구분되는 독립정체성이나 제3의 정체성이라기보다, 역사적으로 “한(조선)반도에서 기원한 민족정체성”이 거주국의 환경에 따라 독특하게 변용된 것이다. 재중 조선족을 포함한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한(조선)반도에서 기원한 문화와 역사를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의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국의 국민이면서 혼합문화를 발전시켜왔지만 정체성의 존재양태는 한(조선)민족 정체성과 별개의 독립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없다.<sup>4)</sup>

특히 동북아에 거주하는 코리언의 이중정체성을 이해하는 핵심은 식민지 시대와 분단시대를 거치면서 민족과 정치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 20세기 한(조선)반도의 역사적 조건이다. 근대 민족국가 형성에 실패한 후, 남북주민에게 국가는 분단상황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경험되었고,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언에게 국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근대의 한 세기를 통해 식민 지배를 당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대립하고 국외로 이산되는 경험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에 이른 우리 조선 민족은 한 국가의 국민(정치적 주권자)으로 형성된 적이 없었다.”<sup>5)</sup> 이런 점에서 보면, 국가와 민족의 불일치에서 오는 이중정체성은 코리언 디아스포라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주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한(조선)민족 정체성의 20세기적 고유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민족이 남과 북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로 분할되어 민족 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이 한 번도 일치해 본 적이 없는 20세기 한반도의 역사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두 축 사이를 오가는 이중정체성을 낳게 만든 근본원인이다. 요컨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이중정체성은 한반도의 특수한 경험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민족=국가’의 좌절, 곧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 2. 코리언 이중정체성의 양상 비교

### 1) ‘조국’과 ‘모국’의 의미

국가와 민족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코리언의 이중정체성은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강도, 민족정체성이 정치적으로 귀속되는 국가나 지역,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공존 혹은 대립하는 관계 등 거주지역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드러난다. 우선, 코리언의 이중정체성 양상을 비교하기에 앞서, ‘조국’과 ‘모국’의 의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사회의 언어사용 맥락에서 ‘조국’과 ‘모국’의 의미는 변별력 있게 구분되지 않는다. 언어의 의미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의 관행적 의미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맥락에서 ‘조국’과 ‘모국’의 의미를 미리 규정하여 질문하지 않

3) 김호웅, 「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중인문학 연구』29집, 2010, 11쪽.

4) 이런 점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재러 고려인 지식인, 한 발레리의 다음과 같은 “메타-네이션” 개념은 참고할 만하다. “향후” 남북 그리고 해외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포함하는 “초국가적 한민족공동체는 코리언 에스니시티의 새로운 진화단계, 즉 역사적으로는 하나의 ‘네이션’에 속하는 것과 관련되지만,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에스닉적인 하부그룹의 집합체’인 메타-네이션을 보여줄 지도 모른다.”(Valeriy, S. Khan, 「Korean Meta-Nation and Problem of Unification」, 『민족공동성 연구 방법론의 모색』 (건대 통일인문학 제7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2011.5.20)), 36쪽.

5) 서경식 지음, 『난민과 국민 사이』, 임성모·이규수 옮김, 돌베개, 2006, 225쪽.

고, 현지어로 번역된 ‘조국’과 ‘모국’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 거주국의 코리언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체계 내에서 두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두 단어는 거주국의 언어사용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통용되고 있었다.

<표 1. 조국과 모국 선택 이유>

	조국 선택 이유				모국 선택 이유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재중 조선 족	재러 고려 인	재일 조선 인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b>58.9</b>	29.1	15.6	52.7	25.3	12.6	13.1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4.5	<b>50.3</b>	4.1	3.2	3.7	12.3	1.3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8.4	7.7	<b>39.2</b>	<b>16.5</b>	<b>61.6</b>	<b>66.3</b>	<b>67.5</b>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14.8	.9	<b>20.4</b>	<b>26.7</b>	9.1	2.5	8.9
나를 돌보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3.4	1.5	1.3	1.0	0.3	1.5	

우선,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들은 ‘조국’의 의미를 ‘태어나서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모국’의 의미를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들은 조국을 선택한 이유로,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두 답변을 합해, 재중 조선족의 73.4%, 재러 고려인의 79.4%가 ‘태어나거나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조국을 이해하고 있었다. 반면, 모국 선택 이유에 대해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를 재중조선족은 61.6%, 재러 고려인은 66.3%로 선택하였다. 이는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이 조국을 ‘태어나 살고 있는 곳’의 의미로, 모국을 ‘선조들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조국’은 국민정체성, ‘모국’은 민족정체성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두 단어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면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거주국의 국민정체성과 한(조선)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 연관된다.

그러나 ‘조국’과 ‘모국’의 의미를 서로 구분하고 있는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과 달리, 재일 조선인의 경우, 두 단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재일 조선인은 조국 선택 이유로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를 39.2%,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를 20.4%로 선택한 반면, 모국 선택 이유로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를 67.5%를 선택하였다. 재일 조선인은 조국과 모국 선택 이유로 모두 ‘내 선조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선택한 셈이다. 이는 재일 조선인이 조국이나 모국 모두 ‘내가 태어났거나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 곧 국민정체성의 맥락이 아니라,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의 의미, 곧 민족정체성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국이나 모국의 의미를 민족정체성의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차별과 억압이 심한 일본사회에 대한 반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재미 한인의 경우, 92% 정도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1세대와 1.5세대이기 때문에 ‘모국’을 묻는 문항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조국’만을 물었다. 재미 한인은 ‘조국’ 선택 이유에 대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를 52.7%,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를 20.4%,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를 16.5%로 선택하였다. 재중 조선족이나 재일 조선인 등 동북아 코리언들과 달리 재미 한인은 1세대와 1.5 세대가 중심이어서 조국에 답한 이유의

52.7%가 ‘태어난 곳’을 답하였다. 따라서 재미 한인의 경우, 조국의 의미는 ‘태어난 곳’을 포함하여 총 89.6%가 민족정체성의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

## 2) 코리언의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순서

<표 2. ‘조국’과 ‘모국’ 선택국가>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조국선택만)	
선택국가	조국	모국	선택국가	조국	모국	선택국가	조국	모국	선택국가	조국
중국	91.9	24.9	러시아	86.8	21.8	일본	16.9	3.2	남한	85.4
조선(북)	4.0	36.0	조선(북)		9.5	조선(북)	4.1	2.5	북한	0.3
한국(남)	0.3	8.8	한국(남)	2.5	15.3	한국(남)	22.3	40.4	한반도	6.0
한반도	1.3	23.9	한반도	0.9	36.2	조선반도	29.9	43.9	미국	8.3
중국과 한반도	2.4	6.4	러시아와 한반도	7.7	15.0	일본과 조선반도	20.4	8.0		

재중 조선족은 ‘조국’으로 ‘중국’을 91.9%가 선택했으며, ‘모국’으로 한(조선)반도 관련 문항(남, 북, 한반도, 중국과 한반도)을 합해, 75.1%가 선택하였다. 재러 고려인들은 ‘조국’으로 ‘러시아’를 86.8%가 선택했으며, ‘모국’으로는 한(조선)반도 관련 문항을 합해 76.0%가 선택하였다. 재일 조선인은 ‘조국’으로 ‘일본’을 16.9%가 선택했으며, 모국으로는 한(조선)반도 관련 문항을 합해 94.8%가 선택하였다. 여기서 ‘조국’은 국민정체성을, 한(조선)반도 관련 문항을 합한 ‘모국’ 지향은 한(조선)반도에의 귀속성, 곧 민족정체성의 정도를 각각 인지적 차원에서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정체성은 재중 조선족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순서이며, 민족정체성은 재일 조선인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순서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재미 한인의 경우, ‘조국’으로 미국을 선택한 비율은 8.3%에 불과하다. 그러나 재미 한인은 조국을 민족정체성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표 2>만으로는 재미 한인의 이중 정체성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 재미 한인의 이중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호칭선택에서 나타난다. 재미 한인 가운데 스스로의 호칭으로 ‘한국인’을 선택하는 비율이 49.8%, ‘한국계 미국인’을 호칭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43.8%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미 한인의 43.8%가 국민정체성은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족정체성은 한국계라는 이중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인’의 선택비율이 49.8%인 점은 귀향의식을 지닌 이민 1세대가 설문대상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가 흐를수록 미국을 조국으로 선택한 비율이 점차 증가(1세대 3.5%, 1.5세대 10.2%, 2세대 46.2%)하고 있는데, 이는 귀향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1세대와 달리 미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1.5세대, 2세대에서 미국의 국민정체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강화되어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과 탈북자에게 ‘조국’과 ‘모국’ 문항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표 2>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탈북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정체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한(조선)민족 귀속감은 매우 높았다. 탈북자는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하기 까지 급격한 신분변동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북에서는 민족 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이 일치했으나, 중국과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정체성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한국 입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 지위와 국가적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귀속정도는 확고하지 않았다.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지만 국가 귀속정도가 확고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2% 정도가 된다는 것은 법적 신분과 현실적 국가 소속감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북-제3국-남으로 이어지는 유랑의 체험 속에서 급격한 국민정체성의 변화를 겪었지만 한(조선)민족이라는 민족적 소속감은 강고하게 지속되었다.<sup>6)</sup> 이는 ‘남한 주민과 같은 민족으로 느낀다’는 응답율이 98.1%(‘항상 느낀다’ 86.2%, ‘가끔 느낀다’ 11.9%)인데서 잘 드러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탈북자의 경우, 동일 기준으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어려워 순위에서 제외), 국민정체성의 순서는 재중조선족-재러 고려인-재미 한인-재일 조선인이며, 민족정체성의 순서는 재일 조선인-재미 한인-재러 고려인-재중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정체성과 달리 민족정체성의 순서는 인지적 차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민족정체성은 무의식적으로 신체에 내면화되어 있는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요소들(신체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마음에 아로새겨진 정서적인 요소들(정서적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은 인지적 정체성, 신체적 정체성, 정서적 정체성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들이 살아온 역사적 환경 속에서 중층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거주국의 국민정체성을 인지적으로 강하게 의식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국에 민족적으로 동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지적 차원의 민족정체성의 순서와 달리 정서적 정체성은 재중 조선족 - 재일 조선인 - 재러 고려인=재미 한인의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신체적 정체성은 재중 조선족 - 재미 한인 = 재러 고려인 - 재일 조선인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순위표를 대략 아래 <표 3>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3. 국민정체성 및 민족정체성의 순위표>

순위	국민정체성	민족정체성		
		인지적 정체성	정서적 정체성	신체적 정체성
1	재중 조선족	재일 조선인	재중 조선족	재중 조선족
2	재러 고려인	재미 한인	재일 조선인	재러 고려인=재미한인
3	재미 한인	재러 고려인	재러 고려인=재미한인	
4	재일 조선인	재중 조선족		

### 3) 민족정체성의 유동적 성격

이상에서 본 것처럼 코리언의 정체성은 민족과 국가를 두 축으로 하는 이중정체성이며, 민족정체성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이 정치적으로 향하는 귀속대상은 한(조선)반도 내의 특정한 국가인가?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리언들의 모국 선택 비율을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국’을 물었을 때, 코리언들의 답변은 남과 북, 한(조선)반도로 나누어졌다. <표 2>에서 보듯, 재중 조선족의 모국 선택은 남 8.8%, 북 36.0%, 한(조선)반도 23.9%였고, 재러 고려인의

6) 이병수, 전영선, 『탈북자의 정체성 이해와 민족의 평등한 유대』,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122-126쪽. 여기서 52%는 ‘살고 싶은 나라’와 ‘호감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남한에 살고 싶지만 남한에 비호감이거나 중립’인 이들이 19.2%, ‘통일반반도에 살고 싶지만 남한에 호감’인 이들이 14.7%, ‘통일반반도에 살고 싶고 남한에 비호감이거나 중립’인 이들이 18.3%를 합해 전체 응답자의 52% 정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에는 북에 두고 온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한국 사회에 살면서 느끼는 모순과 부적응, 그리고 이와 관련된 탈북자들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 있다.

모국 선택은 남 15.3%, 북 9.5%, 한(조선)반도 36.2%였으며, 재일 조선인의 모국 선택은 남 40.4%, 북 2.5%, 한(조선)반도 43.9%였다. 그에 비해 재미 한인의 조국(=모국) 선택은 남 85.4%, 북 0.3%, 한(조선)반도 6.0%였다. 재미 한인의 민족정체성이 남과 북 그리고 한(조선)반도로 분열되지 않고 한국사회로 거의 일원화된 이유는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재미 한인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1세대와 1.5세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코리언의 국민정체성이 거주국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재미 한인을 제외한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은 한(조선)반도의 특정국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그리고 한(조선)반도로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은 남과 북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환원되는 고정된 민족정체성이 아니라 남과 북, 한(조선)반도로 갈라지는 ‘유동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이 남과 북의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유동하는 점은 탈북자에게도 확인된다. 탈북자의 민족정체성은 같은 민족이라는 능동적인 정서와 같은 민족에게서 받는 차별과 편견이라는 수동적인 정서, 두 가지 요인의 결합 정도에 따라 다양한 분화를 겪는다. 두 요인의 결합 정도에 따라 북한 사회를 그리워하거나, 남한 사회로 동화하려는 방향, 혹은 남북에 거리를 두면서 통일한반도를 선호하는 방향, 다시 제3국으로 탈남하려는 방향 등 탈북자 정체성의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진다.<sup>7)</sup> 이러한 다양한 분화는 그들의 민족정체성이 남북 어느 한 쪽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 남과 북 그리고 한(조선)반도로 갈라지는 유동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코리언 민족정체성의 유동적 성격은 일본, 러시아, 중국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이 모국을 선택할 때, ‘한(조선)반도’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특히 관련되어 있다. 재중 조선족의 23.9%, 재러 고려인의 36.2%, 재일 조선인의 43.9%가 남이나 북이 아니라 ‘한(조선)반도’를 모국으로 선택하고 있다.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닌 한(조선)반도라는 모국선택 비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코리언들이 분단 극복의 열망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코리언들의 상당수가 분단된 남과 북의 국가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장차 건설되어야 할 통일된 한(조선)반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코리언 민족정체성의 유동성은 분단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점은 탈북자에게도 드러난다. ‘살고 싶은 나라’가 통일한반도라고 응답한 탈북자의 비율이 44.4%, ‘북한 호감 및 남북 호감 동일’이라고 응답한 비율 40.3%라는 것은 이들의 민족정체성 또한 분단현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sup>8)</sup>

셋째, 그러나 코리언의 유동하는 민족정체성은 거주국의 정치경제적 특성, 이주경험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재중 조선족의 경우, 모국선택에서 ‘한국’(8.8%)에 비해 압도적으로 ‘조선’(36.0%)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한(조선)반도’를 모국으로 선택하는 비율(23.9%)보다 높다. 따라서 재중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은 ‘한(조선)반도’ 지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북 지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분열되어 있다. 이것은 재중 조선족이 ‘북쪽’ 출신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항일무장투쟁이라는 역사적 전통을 같이 했으며, 북과 역사적으로 많은 유대관계를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sup>9)</sup>

재일 조선인의 경우, 모국 선택에서 ‘한(조선)반도’가 가장 높으며(43.9%) 다음으로 ‘한국’(40.4%)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재일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은 한국 지향의 정체성과 한(조선)반도 지향의 정체성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국 선택에서 ‘한국’의 비율이 높은

7) 같은 논문, 145-146쪽.

8) 같은 논문, 126쪽.

9) 박영균, 허명철, 「재중 조선족의 ‘국민’ 그리고 민족의 이중정체성」,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173쪽.

이유는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다수가 한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sup>10)</sup>이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지닌 재일 조선인은 모국 선택에서 한국을 45.1%, 한(조선)반도를 42.75%로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국적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한(조선)반도 지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일 조선인이 한(조선)반도를 모국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어떤 코리언보다 높은 이유는 그들이 남북분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재일 조선인들은 분단체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분열되면서 고통을 겪어 왔기 때문에 분단된 한반도의 어느 한 쪽이 아니라 통일한반도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재러 고려인의 경우, 모국 선택 경향은 남과 북으로 치우쳐 있지 않으며, ‘한(조선)반도’(36.2%)와 ‘러시아와 한반도’(15.0%)를 합해 51.2%가 한(조선)반도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고려인들은 한(조선) 반도를 “전승된 기억 속의 고향”으로 상상할 뿐, 1937년 강제이주 이전의 거주지인 연해주를 자신의 고향으로 인식한다. 대다수의 고려인들, 특히 중앙아시아 출신 연해주 거주 고려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거주국과의 동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의 나라로서 모국의 의미는 잊혀졌으며, 그 대신 전승된 기억 속의 근원적 고향으로서 ‘한반도’를 인식한다. 따라서 그들의 모국은 ‘남한’과 ‘조선’보다는, ‘한반도’, ‘러시아-한반도’처럼 한반도적 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sup>11)</sup>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이 남과 북 그리고 한(조선)반도로 나누어져 유동한다는 사실은 탈민족주의에서 말하는 민족정체성 해체현상, 탈민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조선)반도의 민족사적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반영하고 있다. 한(조선)반도의 특정한 국민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코리언의 유동하는 민족정체성은 거주지역에 따른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일제 식민지와 이로부터 생겨난 분단과 이산이라는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리언의 유동하는 민족정체성은 남과 북의 어느 한 쪽에 수렴되지 않는 한(조선)반도라는 통일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단극복의 지향을 지니고 보여주고 있다.

#### 4)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관계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은 코리언이 살아온 삶의 역사적 환경에 따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반면, 갈등하고 대립할 수도 있다.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 간의 관계는 크게 공존과 조화, 그리고 대립과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은 공존과 조화의 유형을, 재일 조선인과 탈북자는 대립과 갈등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은 높은 국민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이중 정체성이 공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재중 조선족의 높은 국민정체성은 항일무장투쟁을 같이 하면서 오늘날 중국의 혁명과 건설에 기여했던 삶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재중 조선족은 중국 공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또한 그들은 중국의 건국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형성하였고, 따라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 조선족은 자치주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왔기 때문에 한(조선)민족의 정체성(특히, 정서적, 신체적 정체성)도 강한 편이다.

10) 전체 재일 조선인 구성비를 보면, 한국 국적:조선적:일본 국적의 비율이 65:5:30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자의 국적 비율은 한국 국적:조선적:일본 국적 비율이 80:8:12였다.(김익현, 「재일 조선인의 민족정체성과 경계인」,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275쪽)

11) 박민철, 정진아, 「재러 고려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238쪽.

한편, 재러 고려인들은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이후 생존을 위해 러시아어를 배우는 등 구썬 사회에 동화되면서 ‘모범적인 소비에트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또한 그들은 강제이주와 혹독한 고난의 역사를 겪었으면서도, 높은 생활수준과 교육수준 등 ‘성공한 소수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있다. 근면과 성실에 바탕을 둔 성공한 소수민족이라는 이미지는 혹독한 고난과 억압적 삶의 조건을 극복한 자긍심의 표출이다.<sup>12)</sup> ‘모범적인 소비에트인’과 ‘성공한 소수민족’이라는 자긍심은 재러 고려인들의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조화와 공존을 보여주고 있다. 재러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에서 특징적인 점은 대부분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러시아에 문화적으로 동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자부심과 더불어 전통적 생활문화를 상당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미 한인은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등 동북아의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달리 자발적으로 이주했으며, 미국사회가 정치적 영역의 차별과는 달리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중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일 조선인과 탈북자는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공존과 조화를 이룬다기보다 대립,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일 조선인은 조국과 모국 선택에서 일본을 선택하는 비율이 각각 16.9%와 3.2%로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재일 조선인이 다른 지역의 코리언에 비해 거주국 일본의 차별이 심해 일본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재일 조선인은 일본사회에 살면서도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순혈주의적 민족정책으로 인해 한(조선)민족의 전통적 생활문화를 줄곧 부정당해왔다. 서경식은 이러한 일본사회에서 자행되는 차별과 소외를 일제시대의 ‘민족말살정책’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문화적 대학살’이라고 부르고 있다.<sup>13)</sup> 따라서 재일조선인은 차별과 배제에 대한 반발과 저항으로부터 생기는 강한 민족정체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 때 한(조선)민족 소속감은 일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 즉 재일 조선인의 민족정체성은 일본사회의 차별과 억압에 대한 저항의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윤건차가 민족개념에서 언어와 혈연 같은 종족적 차원보다 식민지 지배에서 유래하는 내력 의식, 역사의식을 중시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sup>14)</sup> 이 내력 의식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침략에 대한 반발, 저항의 식이며, 해방 후는 일본사회의 차별과 소외에 대한 반발, 저항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 역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신분을 지녔지만 현실적인 국가 소속감은 전체 응답자의 52% 정도에 머물러, 대한민국 국민정체성과 한(조선)민족 정체성이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한국 입국 후 국가 및 주민들과의 교섭과정에서 경험한 차별과 소외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경험한 차별과 소외는 시민적 권리의 차별이라기보다 같은 민족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데서 온다. 탈북자들의 상처는 단순히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받는 차별이 아니라, 같은 민족을 차별하는 남

12) 그러나 권희영은 ‘소수민족의 성공’이라는 신화는 고려사람이나 한국사람들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줄지 모르지만, 이런 성공신화는 일종의 강박으로, 체제에 대한 과잉적응, 민족과 개인의 정체성의 희생과 그 궤를 같이 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권희영,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역사적 외상과 그 영향 분석』, 권희영, Valery Han, 반병률,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64-65쪽)

13) 서경식, 앞의 책, 131쪽.

14) “민족이란 이미 생물학적 인종 및 혈연, 지연과 연관되는 종족(ethnic)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서 유래하는 출신이나 내력과 관련된 의식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다.” (윤건차, 『재일동포의 민족체험과 민족주의』, 『시민과 세계』제5호, 2004, 80쪽)

주민의 삶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 가운데 한편이 강화되면 다른 한편이 약화되는 부(-)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상, 코리언의 이중정체성의 공존과 대립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관계가 부(-)가 아니라 양자가 서로를 상승시켜주는 정(+)의 관계라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 공민으로서의 긍지가 높으면서도 신체적, 정서적 차원의 높은 민족정체성을 지닌 재중 조선족에서 잘 드러난다. 왜냐 하면 재중 조선족은 거주국의 국가가 그들의 민족정체성을 보존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정체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산물인 자치주가 오히려 그들의 신체적 정체성과 정서적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민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반면 제일 조선인은 그들의 민족정체성을 억압당함으로써 역으로 그와 반대의 결과, 즉 국민정체성의 형성 또한 가로막아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sup>15)</sup> 요컨대 재중 조선족에서 보듯 민족정체성의 보장이 오히려 국민정체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지만, 제일 조선인에서 보듯, 민족정체성을 억압하고 국민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정체성 자체의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이 서로 '정(+)'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한국인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소통가능성과 불통의 아비투스

#### 1) 한국인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소통가능성 : 한국인의 국민개념 및 민족개념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거주국의 국민정체성과 한(조선)민족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민족 전통문화의 변용 정도나 남과 북 그리고 한(조선)반도의 귀속감 여부, 그리고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공존과 갈등 정도 등, 이중 정체성이 드러나는 양상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코리언의 이러한 이중정체성은 한(조선)민족 정체성의 '변질' 혹은 그 정반대인 '해체'의 징표가 아니라, 통일한(조선)반도의 새로운 민족정체성 정립을 위한 민족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코리언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변용시킨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승인하면서, 상호소통을 통해 공통성을 확장해가는 노력이 동반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인들의 코리언 디아스포라 인식에서 이러한 상호 인정과 소통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방식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인은 민족과 국민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다. 냉전기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는 민족정체성과 구분되는 별도의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치 않고 같은 핏줄, 언어, 역사를 공유하는 귀속적, 종족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냉전시기, 한국의 국민개념에는 항상 혈연적 운명공동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개인의 자유로운 공동체라는 이해는 자리 잡을 수 없었다. 국민개념이 민족개념과 분화되지 못한 채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개념과 민족개념의 미분화 혹은 동일시는 남북이 서로를 반민족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자기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

15) 김성민, 박영균, 「코리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협력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316쪽.

하는 민족 정체성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한 민족 두 국가’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한편, 코리언 디아스포라와의 접촉 증대로 인해 오랫동안 민족과 국민을 동일시하던 통념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민족과 국민 개념이 구분되면서 국민정체성에서 귀속적 요인이 감소되고 시민적 요인이 증대되었다. 이는 “한국인들의 국민정체성은 종족-혈통적인 모델이 아니라 시민-영토적 모델에 훨씬 더 가깝고, 국적, 한국어 취득 등 후천적인 요인을 더 중시”<sup>16)</sup>하거나, “한국인의 자격요건으로 혈통과 문화보다는 정치적 소속감과 의무를 더욱 중요시 여”<sup>17)</sup>긴다는 최근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정체성에서 종족적 요인보다 시민적 요인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민족과는 구별되는 대한민국 국민의식이 밑으로부터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인의 국민개념과 민족개념의 분리 경향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이중정체성을 이해하는 소통의 지점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중국 조선족이 중국 공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녔다고 해서, 이를 한(조선)민족정체성을 훼손하는 사태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정체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조선)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코리언의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불일치가 일제식민지 지배와 분단이라는 20세기 한(조선)반도의 역사적 수난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의 고통 인식은 코리언들의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1990년대 이후 한국인은 국가주도의 국민정체성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자발적인 국민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조선)민족 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공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정체성의 강화는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가 높아진 데서 유래한다. 1987년 이후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두 축으로 한 한국사회의 발전은 구성원의 삶과 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상적 민주주의의 경험과 한국자본주의의 물질적 성취를 실감하였고, 이런 독특한 일상적 실감에 기초하여 반공민족주의와도 그 성격을 달리하는 독자적인 정서와 지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sup>18)</sup>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힘입어, 한국인의 국민개념은 국가에 의해 혼육된 혈연적 요인과 반공적 국민의식이 주도하던 냉전기와 달리,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된 대한민국 소속감과 긍지를 지닌 시민적이고 정치적 차원의 의미로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 강화가 한국인의 한(조선)민족 정체성 약화를 가져오는가?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대립관계, 부(-)의 관계로 파악하는 이들은 북에 대한 적대성이 대한민국의 국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민’과 ‘민족’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조한다. 그러나 밑으로부터 민주적으로 형성된 국민정체성은 국가 주도의 반공적 국민정체성과 다르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국민정체성은 국가 주도로 혼육된 반공적 국민의식과 달리, 시민의 권리를 확대해 온 민주화 과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국민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 권리가 성장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종족적 배타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며, 한(조선)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요컨대, 한(조선)민족정체성은 국가주도의 반공적 국민정체성과는 대립관계에 있을지라도,

16) 황정미, 「다문화 담론의 확산과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변화 : 의식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제24호, 2011, 20쪽.

17) 윤인진 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통권 제55호, 2011, 145쪽.

18) 박명규, 「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평화민족주의」, 『시민과 세계』제8호, 2006, 423쪽.

민주적 시민성의 증대에 기초한 자발적인 국민정체성과 오히려 공존 가능하다.

또한,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을 대립관계로 보는 이들은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국민정체성의 강화와 더불어,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같은 민족으로 간주하는 민족정체성이 동시에 강화되어 왔음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국민정체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와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한(조선)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각각 87.4%와 89.7%나 되었다. 이는 탈냉전후, 한국인의 민족개념이 남북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외연적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민족개념의 외연이 냉전기의 남 혹은 한반도에 국한된 시야를 벗어나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동포’ 전체를 망라하게 된 것이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망라하는 한(조선)민족 개념의 외연 확대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다문화적 관용성을 강화한다. 이는 한민족 소속감이 강한 사람이 국민의 범위를 의외로 넓게 인식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민족 귀속의식은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민을 배타시하는 태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한민족 소속감이 강한 사람들은 국민적 소속감이 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이주민을 국민의 범위 안으로 더 많이 포용하는 인식을 보였다.<sup>19)</sup> 따라서 한국인들의 민주적인 대한민국 정체성 강화는 한(조선)민족정체성의 약화라기보다, 국민과 민족을 구분하고, 두 정체성을 대립이 아닌 공존과 조화의 관계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탈냉전후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관계가 서로를 상승시켜주는 정(+)의 관계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셋째, 최근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변화는 기존과 같은 순혈주의적인 성격을 벗어나 보다 새로운 형태인 개방적인 성격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 탈냉전 이후 20여년이 흐른 지금, 한국인의 민족개념에는 국적과 체제의 측면보다 언어와 문화적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언어, 생활풍습 등 생활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감대, 혈연 등 그 지표가 매우 다양해졌다. 민족정체성을 이해하는 관점이 개방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민족적 정체성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혈연’을 꼽은 사람은 7.4%에 불과했으며 이외의 다른 요소들, ‘문화’(34.9%), ‘역사’(23.8%), ‘생활풍속’(14.4), ‘언어-문자’(17.8%) 등을 더 많이 선택한 데서 잘 드러난다. 특히,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데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라는 당위론적 물음에 대해 혈통의 순수성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낮았음(4.6%)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민족정체성 형성에서 더 이상 피의 순수성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인 민족정체성의 변화에서 나타난 이러한 개방적이고 다양한 성격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민족적 연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정체성을 과거와 같이 혈연과 언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이해하는 것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이 다르고, 이주의 배경과 역사적 경험이 서로 다른 코리언 디아스포라와의 소통을 가로 막는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거주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언어, 혈연, 생활문화, 가치관 등의 측면에서 혼합문화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민족정체성 이해에서 나타난 혈연적 동질성에 대한 믿음의 약화와 민족정체성 지표의 다양화는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문화변용을 변질이 아니라 차이로 인식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민족공통성’(national commonality)을 형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19) 황정미, 앞의 논문 32-33쪽.

## 2) 한국인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소통을 가로막는 불통의 아비투스

탈냉전은 기존 남북관계를 변화시켰으며, 세계화는 한국사회를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된 사회로 탈바꿈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민족개념과 국민개념은 민족과 국민을 동일시한 냉전시대의 국가의 상징체계에서 벗어나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민족개념의 외연은 한반도를 벗어나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포괄할 정도로 확장되었으며, 내포적으로도 혈연적, 체제적 요인이 우세하던 그간의 민족이해로부터 정서와 생활문화 등 그 지표가 다양해졌다. 이처럼 한국인의 변화된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코리언 디아스포라와의 소통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살면서 일상적 반복을 통해 체화된 ‘아비투스’는 코리언 디아스포라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인 믿음과 상관없이 실제로 그들과 접했을 때이나 자신과의 직접적인 실천적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부지불식간에 편견과 무시, 차별을 낳고 있다. 아비투스는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 체화되어 आरो새겨져 있는 구조화된 성향과 믿음들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비투스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코리언의 ‘타자성’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고 불통의 지점을 만들어낸다.

한국인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아비투스는 의식적 생각이나 당위적 믿음과 무관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과 편견을 낳고 있는 원인이 된다. 이를테면 한국인들은 86.6%가 같은 민족이므로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당위적으로 믿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한(조선)민족을 차별하는 행태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이 당연히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동포’에 대한 의식적이고 당위적 차원의 물음이 아니라 결혼, 친교 등 ‘해외동포’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맺는 관계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한(조선)민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적 믿음이 86.6%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언 디아스포라와의 결혼에 대해 물었을 때, 재미 한인과 재중 조선족, 재일 조선인, 탈북자에 대해 각각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들은 재미 한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22.4%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재일 조선인의 경우 반대비율은 28.2%, 재중 조선족의 경우 결혼 반대 비율은 30.7%였으며, 더욱이 탈북자의 경우는 결혼 반대비율은 그 보다 높은 39.3%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답변 변동 추이를 보면 먼저 재미-재일-재중-탈북자 순으로 반대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의 순서와 일치한다. 또한, 결혼반대 비율의 폭이 크게 상승하는 곳이 재미와 ‘재일-재중’ 사이, 그리고 ‘재일-재중’과 탈북자 사이인데, 이것은 과거 반공주의 시절에 유행했던 적성분자에 대한 인식과 동일하다.<sup>20)</sup>

코리언 디아스포라와의 관계에서 불통을 유발하고 있는 아비투스는 크게 보면 분단현실에서 몸에 밴 대한민국 국가주의, 한국 위주로 민족문화를 사고하는 데 익숙한 자문화중심주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내면화된 경제중심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한민국 국가주의는 냉전기에 훈육된 국적과 체제를 통해 민족개념을 사유하려는 경향을 가리킨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힘입어, 민족과 구별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높아졌지만, 반공 국가주의는 분단상황의 첨예한 남북대결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탈냉전과 상관없이 오늘날도 한국인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냉전체제에서 체화된 민족과 국민의 동일시 때문에 한국인이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접촉할 때 곧잘 불통을 야기한다. 이를테면 코리언 디아스포라에게 거주국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하면 누구를 응원 하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거주국을 응원한다는 응답을 하면 마치 민족

20) 김성민, 박영균, 앞의 논문, 320쪽.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그러하다. 한국인들은 그 동안 분단현실에 길들여져 국가와 민족을 일체화함으로써 같은 한(조선)민족이지만, 중국 국민, 러시아 국민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이중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단일 정체성을 요구하는 편향을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이 현재 코리언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은 과거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한국인의 코리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미지는 냉전적 분단상황 속에서 한국의 국가만들기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이를테면 반공군사독재정권에 의한 재일 조선인 간첩만들기가 한국사회의 반공주의적 재일 조선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21)</sup>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 조선인을 친북적 존재로 이해하는 한국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미지에 속한다.

둘째, 대한민국 자문화중심주의는 한국사회에 익숙하게 통용되는 가치관과 생활문화를 표준으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문화변용을 민족문화 순수성의 변질 혹은 이질화로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인지적 차원에서 민족개념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실제로 접촉할 경우, 일상적 삶 속에서 내면화된 한국인의 자문화중심주의적인 경향은 곧잘 표출된다. 자신의 문화를 표준으로 여기면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문화변용을 재단하는 것은 한국인과 코리언 디아스포라 사이에 또 다른 불통의 지점을 만들어낸다. 즉 “하나의 한인 정체성을 기준으로 하여 전세계 한국인을 그 기준에 부합시키려는 일원화 논의”는 “한반도의 한국인과 다른 코리언 사이에 정상적 대화를 가로막는다.”<sup>22)</sup>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해외 거주 코리언들을 89.7%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국 땅에서 실제로 접했을 경우 ‘우리 민족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29.5%나 되었다. 또, 그 이유에 대해 ‘언어와 관습 등 문화적 이질감’을 선택한 비율이 46.7%에 달했다. 이는 의식적 차원에서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면서도 막상 국내에 들어온 코리언들과 실제로 접촉하면서, 자기 몸에 밴 한국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적 이질감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역시 국가 주도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탈북자나 재중 조선족의 변화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의식주, 명절, 관혼상제 등 전통적 생활풍습의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자문화중심주의가 몸에 배어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적 변용에 대해 문화적 이질감을 실감하며, 다른 민족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신의 생활문화가 크게 변화되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활문화를 표준으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를 평가하게 된다.

셋째, 대한민국 경제(중심)주의는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내면화된 경제주의적 가치관을 통해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평가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경제주의는 복과의 정통성 경쟁을 동력으로 국가총력전에 버금가는 압축적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들어 모든 사회적 문제를 경제로 환원시켜 이해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경제주의적 관점이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같은 한(조선) 민족이지만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열등한 중국 조선족이나 탈북자에 대한 차별을 낳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언 디아스포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낳는 것에는 국적과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이데올로기적 선입견, 문화적 이질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대한 가치평가도

21)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왔는가」, 『역사비평』78호, 역사비평사, 2007, 253쪽.

22) 한 발레리(Valery Han),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정체성 문제」, 권희영, Valery Han, 반병률,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118쪽.

포함된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주의적 가치관은 특히 탈북자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종 조선족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편견’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은 인지적 차원에서는 비록 같은 민족인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지만,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의 몸에 밴 경제주의적 삶의 방식 때문에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진전에 힘입어 한국인의 민족개념은 외연적, 내포적 변화과정을 겪었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중심주의’가 일상적 삶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중심주의의 극복 여부는 한국인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소통과 연대, 그리고 분단극복을 위한 새로운 민족정체성 형성에서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중심주의의 극복은 그 동안 한국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성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과 북 그리고 코리언 디아스포라와의 상호소통과 연대를 위한 긍정적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방 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취가 “‘한국’이라고 부르는 남한의 국가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자족적인 국가이자 주권국가로서 성장한 한국현대사”<sup>23)</sup>를 보여준다는 협애한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해방정국에서 분단의 공식화과정으로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일한국의 전망으로부터 읽어”내면서 “ ‘분단의 창’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려는”<sup>24)</sup> 보다 넓은 시각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그 동안 이룩한 성취와 한계를 ‘분단의 창’ 뿐만 아니라, ‘식민의 창’과 ‘이산의 창’을 덧붙여, 전체 한(조선)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성취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취를 한국사회에 지배적인 정치경제적 틀, 가치와 문화의 틀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그리고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한(조선)민족 전체가 이룩한 역사적 문화적 성취의 맥락에서, 그리고 ‘민족적 합력’을 창출하는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 4. 나가는 말 : ‘민족공통성’과 새로운 민족공동체 형성

복합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한(조선)민족정체성을 대한민국이라는 특정 공동체에 고유한 민족개념의 틀로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 특정 공동체에 의한 민족개념의 일방적 전유를 벗어나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이중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룩한 문화변용을 변질로 보지 않으려는 시각이 요구된다. 만약 한(조선)민족 소속의 기준을 언어나 혈연과 같은 동질성에 의해 규정할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수많은 코리언들은 한(조선)민족 구성원의 자격이 박탈될 것이다. 코리언의 다양한 이중정체성의 양상은 전통적인 종족적 민족개념으로 포용할 수 없는 타자들과의 결합에 대한 사유를 촉구한다. 이런 점에서 20세기의 한반도 역사에서 비롯된 한(조선)민족 정체성의 다양한 변용들을 단일 정체성으로 통합해야 할 정체성의 분열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민족 개념을 사유하는 출발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적 틀을 넘어 남과 북 그리고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포함하는 ‘민족적 합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결합 원리를 사유해야 한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 코리언들이 각 지역에서 이룩한 차이와 문화변용은 한(조선)민족 정

23) 최창집, 「‘해방’ 60년에 대한 하나의 해석: 민주주의자의 퍼스펙티브에서」, 『시민과 세계』 제8호, 2006, 22쪽.

24) 박순성, 「한반도 분단과 대한민국」, 『시민과 세계』 제8호, 2006, 99쪽.

체성의 변질이나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민족개념 형성을 위한 자원이다. 민족정체성이 변질되었다거나 해체되었다고 보는 것은 본질적 동일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모든 본질주의를 거부하는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 개념은 ‘민족공통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트겐슈타인은 “나는 이러한 유사성들을 ‘가족 유사성’이라는 낱말에 의해서 말고는 더 잘 특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몸집, 용모, 눈 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등한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유사성들이 그렇게 겹치고 교차하기 때문”<sup>25)</sup>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가족유사성이란 어느 하나의 지표, 즉 눈, 코, 입, 얼굴 등의 단일한 속성으로 그 답음을 규정할 수 없는 가족처럼 어떤 공통된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을 의미한다. 가족들은 서로 유사하지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답음의 공통적인 지표는 없으며, 누구와 누구는 눈의 색깔이 닮고, 누구와 누구는 귀의 모양이 닮듯이, 답음의 방식이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방식으로 닮았다. 그러나 서로 교차해서 닮은 유사성 때문에 그들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데 지장이 없다.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코리언들은 가족처럼 서로 닮아 있지만 어느 하나의 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간에는 서로의 답음이라는 흔적과 집단적 공유의 끈을 가지고 있다. 코리언들은 정치체제와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정체성의 다양한 요소들을 변형시켜 왔지만, 집단적 유대의 끈을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한(조선)민족의 구성원으로 여기고 있다.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은 ‘혈통, 언어, 생활풍습’과 같은 어떤 하나의 잣대가 아니라 ‘닮았지만 어느 하나의 답음’으로 환원할 수 없는 가족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싫든 좋든 내가 한(조선)민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4. 싫든 좋든 내가 한(조선)민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느끼는가?>

	한국인	탈북자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민 한인 <sup>26)</sup>
정서적인 공감대	<b>28.5</b>	11.0	16.5	1.5	15.9	48.6
같은 언어	<b>21.6</b>	<b>41.3</b>	<b>32.3</b>	6.4	7.6	57.5
비슷한 생활풍습	12.8	<b>20.2</b>	<b>21.2</b>	14.7	19.1	34.3
타민족과의 만남을 통한 차이	8.8	4.6	13.8	<b>26.4</b>	8.9	10.5
같은 핏줄	<b>21.2</b>	15.6	14.1	<b>40.8</b>	<b>21.0</b>	20.0
비슷한 사고방식에서	4.8	3.7	2.0	3.1	4.8	20.0

위의 <표 4>에서 보듯이 ‘한국인’과 ‘탈북자’,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이 한(조선)민족이라는 유대성을 발견하는 지점은 각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서로가 공유하는 지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탈북자, 재중 조선족과 재미 한인은 ‘같은 언어’를 공유하며 한국인과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은 ‘같은 핏줄’을 공유한다. 또한, 탈북자와 재중 조선족은 ‘비슷한 생활풍습’을 공유한다. 따라서 각자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정서적인 공감대’, 탈북자와 재중 조선족은 ‘비슷한 생활풍습’, 재러 고려인들은 ‘타민족과의 만남을 통해 차이를 느껴서’와 같은 특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민족

25)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지음,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책세상, 2006, 71쪽.

26) 재미 한인의 경우, 설문항목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였기 때문에, 다른 코리언들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라는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sup>27)</sup>

민족공통성은 한(조선)민족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혈연, 언어, 생활문화 등 표준화될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코리언들이 각 지역에서 이룩한 차이와 문화변용을 바탕으로, 이 '차이'들이 상호 교감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민족공통성은 사전에 선형적으로 규정된 종족적 동일성과는 달리,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지닌 코리언들 접촉과 교류의 구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미래기획적 특징을 지닌다. 민족공통성은 사전에 미리 규정된, 차이를 억압하는 동일성과는 달리, 코리언들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각각의 차이를 소통함으로써 장차 새로운 공존적 삶의 양식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미래적 기획이다.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민족공통성 형성과정에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식민주의 질서의 극복 가능성 모색, 한(조선)민족 디아스포라의 네트워크 가능성 모색, 전통적 종족성이 반민주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모색 등이 포함될 것이다.

---

27) 김성민, 박영균, 앞의 논문, 319쪽.

## 2부 코리언의 분단-통일 의식 비교연구



##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코리언의 인식 비교<sup>28)</sup>

박종성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원)

### 1. 들어가며 : 분단 극복의 민족적 주체로서의 코리언 디아스포라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코리언의 인식 비교’는 지난번에 연구되었던 한국인, 탈북자,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던 것을 기초로 하여 각 코리언들에 대해 상호 비교분석을 한 것이다. 이들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단일한 역사, 문화적인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제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분단으로 인한 민족= 국가의 좌절을 겪었다. 이들은 내적 원인에 의한 자발적인 이주라기보다는 정치적 탄압, 토지 및 생산수단의 수탈, 강제징용 등 일제의 식민지 지배라는 외부의 강제적 요인으로 인해 형성되었다.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구소련 국가들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은 전체 코리언들의 57%(414만명)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한반도의 식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sup>29)</sup>

이 때문에 이들 코리언들은 통일 한반도 건설이라는 문제에서 방관자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들은 분단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한·미·일 남북삼각과 북·러·중 북방삼각의 한 축을 형성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코리언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한반도의 분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에 거주하고 있다. 요컨대,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식민’과 ‘분단’이라는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적 수난을 남북 주민과 더불어 공유하고 있다.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형성의 원인과 지정학적 분포는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떠나 이해될 수 없다.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이산 자체가 식민지배와 분단이라는 한(조선)반도의 비극적 역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분포가 보여주듯이 미, 러, 중, 일 등 한(조선)반도의 분단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한(조선)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와 유대를 지니고 있으며, 한(조선)반도의 통일에 대해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이 글의 대상인 중국, 러시아, 일본에 거주하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단순한 해외 이주자가 아니라 분단 극복의 ‘민족적’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 탈북자,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각각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각각의 코리언들의 1) 통일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살펴보고, 이들의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3가지, 역사적 중

28) 이번 코리언 통일인식 비교에서 재미 한인을 제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현지 조사 파트너와 협의 하면서 처음 계획은 100문항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45문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코리언들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재미 한인이 식민지 하에서 이주하지 않았으며, 동북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29)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언의 분단 · 통일인식』, 2012, 선인, 25쪽.

요성, 민족적 중요성, 국제적 중요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비교는 2) 통일의 역사적 중요성은 일제 식민지의 극복을 위한 것이며, 3) 통일의 민족적 중요성은 분단의 폐해와 민족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었으며, 4) 통일의 국제적 중요성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맥락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 2. 통일에 대한 코리언의 인식

### 1) 통일에 대한 전망

<표 1. 한(조선)반도 통일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분류	한국인	탈북자	재중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밝다	30.1	<b>62.4</b>	48.5	<b>59.5</b>	30.6
어둡다	<b>68.7</b>	34.9	<b>51.5</b>	40.2	<b>61.5</b>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조선)반도 통일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상대적으로 ‘밝다’고 답한 것은 탈북자와 재러고려인이었고, ‘어둡다’고 답한 것은 한국인, 재일조선인이었으며, 그 중간은 재중조선족이었다. 따라서 통일전망과 관련하여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통일에 대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집단은 ‘탈북자’(62.4%)와 ‘재러 고려인’(59.5%)이다. 탈북자들이 통일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는 “그들이 일가친척을 북에 두고 온 실향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북의 체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고 할지라도 통일의 대상으로 북쪽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북의 체제와 북의 주민은 다르다. 반면 분단체제에서 한국인들에게 심어진 심리는 북의 체제=북의 주민이다. 따라서 남쪽 사람들과 탈북자들은 통일을 보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요컨대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탈북자의 통일에 대한 전망은 상반된다. 탈북자들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통일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통일을 남북 체제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 주민들 사이의 통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재러 고려인’은 통일에 대한 전망은 탈북자 다음으로 높다. ‘재러 고려인’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개발과 한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자신들의 삶을 운택할 수 있는 산업화로 인식하고 있다.<sup>31)</sup> 지역적으로는 사할린 출신 재러 고려인들이 특히 통일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70.0%:26.7%) 사할린 출신의 통일전망이 높은 이유는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재중조선족의 경우는 통일 전망을 어둡게 보는 비율(51.5%)과 밝게 보는 비율(48.5%)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의 코리언보다 정세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중조선족은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냉전 구도 하 미중간의 갈등 및 남북 사이의 긴장 등 동북아 정세 속에서 통일을 전망하고 있다. 1999년 재중조선족 250명을 대상으로 한국방송공사와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가 조사한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의식조사와 비교해보면 현재 재중조선족이 보이고 있는 통일 전망과 차이가 있다. 199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중조선족 250명 중 78.6%가 3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sup>32)</sup>

30) 같은 책, 275-276쪽.

31) 같은 책, 184쪽.

즉, 통일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재중 조선족의 통일 전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이유는 1999년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었던 시기였지만, 본 조사가 행해진 2011년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과 같은 일련의 충돌로 인해 미중이 군사적으로 갈등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시기로 그러한 정세가 재중조선족의 통일 전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모든 코리언 가운데 한국인과 재일 조선인의 통일전망이 가장 어둡게 나왔다. 한국인이 통일전망을 어둡게( 68.7%) 보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들어 햇볕정책의 쇠퇴와 그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 반응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통일 전망을 어둡게 본다고 해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2011년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가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21.3%가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고, 79.7%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sup>33)</sup> 이는 최근의 정세로 인해 통일 전망을 어둡게 보는 비율이 높아졌지만, 남북관계가 우호적으로 개선될 경우, 한국인의 통일 전망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일조선인 또한 통일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데(61.5%), 그 이유는 남북의 적대적 관계가 재일조선인 사회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은 어느 다른 코리언 디아스포라에서보다 본국인 남한과 북한의 적대적 관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고이즈미 방북 이후에 조·일 관계의 악화로 일본 내 극우보수들로부터의 사회적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재일 조선인’은 통일에 대한 전망 또한 ‘한국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코리언의 통일 전망이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의해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코리언의 통일 전망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동북아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나 미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가 평화와 공존의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코리언들이 한(조선)반도 통일을 밝게 전망하는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언들은 통일 전망과 관련하여 대체로 부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민족 발전이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통일이 중요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통일 전망은 현실적인 정세판단과 관련되지만, 통일의 중요성은 현실적 정세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민족적, 국제적 맥락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2) 통일의 역사적 중요성 : 일제 식민지 지배와의 연관성

<표 2.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분류	한국인	탈북자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재일조선인
남북분단	33.7	36.7	40.7	69.6	51.6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	12.2	4.6	9.1	6.4	7.6
경제적인 가난	5.8	8.3	12.5	1.2	7.6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39.3	35.8	11.4	5.2	11.8

32) 박준식·이재혁·한준, 「제1부 한민족 구성원의 삶의 현황과 실태:제5장 남북한과 통일」,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의식조사』,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1999, 70쪽.

3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움,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34쪽.

한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	6.0	14.7	26.3	12.6	8.6
-----------------	-----	------	------	------	-----

<표 3.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분류	한국인	탈북자	재중 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분단 극복과 통일	24.8	45.0	51.5	63.5	43.3
자주적 외교	17.4	17.4	14.1	7.7	8.9
한국 내의 친일파 청산	23.6	12.8	9.1	2.5	2.5
북·일, 북·미 수교		6.4	8.1	12.9	20.7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	29.5	17.4	17.2	7.7	10.2

<표 2>와 <표 3> 을 연결하여서 보면, 분단의 역사성에 대한 코리언의 인식과 통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먼저 <표 2>에서 ‘한국인’과 ‘탈북자’는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문제로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남북 분단’을 선택하였다. ‘한국인’과 ‘탈북자’가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문제로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코리언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을 <표 3>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표 3>에서 ‘한국인’과 ‘탈북자’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분단 극복과 통일’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한국인’과 ‘탈북자’는 분단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이다. ‘한국인’과 ‘탈북자’는 남북 분단과 전통문화의 훼손을 일제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지배는 남북분단을 야기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이 이루어졌으므로 다시금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단 극복과 통일’이며 이를 통해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코리언들도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문제로 ‘남북분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또한 ‘분단 극복과 통일’이 다른 항목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일제 식민지가 ‘남북분단’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분단 극복과 통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재중, 재러, 재일 코리언들은 한(조선)반도의 분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모두가 분단체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한(조선)반도의 분단이 일제 식민지에 의한 것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중 조선족<sup>34)</sup>은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을 위한 6.25 전쟁에 참여하여 2만 여명이 전사하였고, 재일 조선인은 남북의 분단으로 인한 조총련과 민단이라는 대립과 상호 적대로 인한 고통을 느꼈으며, 재러 고려인 또한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분단의 직간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려인들은 이주->강제이주->재이주라는 삼중의 이산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의 제국주의와 이주국에서의 국가폭력에 의해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재러 고려인’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로 ‘남북분단’을 선택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코리언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35)</sup>

34) 재중 조선족이 다른 코리언들보다 ‘이산’의 문제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이산되어 살면서 북쪽과 남쪽과의 교류를 통해서 차이를 느끼면서 이산의 상처를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각각의 코리언들은 일제 식민지로 인한 가장 큰 문제로 ‘남북분단’을 선택하고 있으면서도 식민지 지배 청산을 위해서는 과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크게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한국인’, ‘탈북자’, ‘재중 조선족’은 식민지 지배 청산을 위한 과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분단 극복과 통일’, ‘자주적인 외교’, ‘한국 내의 친일파 청산’,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선택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총체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문제가 하나로 환원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식민지 지배 청산을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재러 고려인’과 ‘재일 조선인’은 ‘북·일, 북·미 수교’라는 것에 다른 코리언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북·일, 북·미 수교’는 남북분단을 둘러싼 북·일, 북·미간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이들 코리언들은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할린 지역이 일본과 가깝고 연해주 지역은 북·중과 가깝다는 점에서 북·일간의 긴장감을 반영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정리하면 모든 코리언들은 일제 식민지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이 식민지 극복이라는 역사적 지평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 청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한국인’, ‘탈북자’, ‘재중조선족’은 ‘재러고려인’과 ‘재일조선인’보다 총체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과 ‘탈북자’가 일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로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한(조선)민족의 문화나 언어, 풍속을 공통적으로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통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한국인’과 ‘탈북자’가 일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로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유사하면서도 식민지 청산의 과제에 있어서는 ‘탈북자’가 ‘분단 극복과 통일’이라는 점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보다 ‘탈북자’가 통일을 보다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탈북자’가 통일을 자신의 삶을 보다 운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94.5%)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은 통일을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드러나는 점이다. ‘한국인’이 통일을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분단 극복의 과제가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한국인’이 ‘분단 극복과 통일’을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인’은 일제 식민지에 의한 분단체제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분단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재일 조선인’이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위한 과제에 있어서 다른 코리언들보다 높게 ‘북·일, 북·미 수교’(20.7%)가 나타나는 이유는 2002년 이후의 조·일 관계 악화로 인한 삶의 고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코리언들의 분단, 통일의식은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정치적 국면과 국제적인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위한 과제에 있어서 ‘재러 고려인’도 ‘북·일, 북·미 수교’라는 것에 다른 코리언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남북분단을 둘러싼 북·일, 북·미간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이들 코리언들은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을 드러

35) 앞의 책, 183쪽.

36) 앞의 책, 192쪽.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물음을 식민지배라는 분단의 역사적 유래와 관련하여 알아 보았다.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남긴 가장 큰 문제’로 ‘남북 분단’을 1위로 꼽고 있으며,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역시 ‘분단 극복과 통일’을 1위로 선택하였다. 분단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이므로 분단의 극복은 국권상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의 중요성은 분단 적대성 극복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지배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이 민족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보다 직접적으로 통일에 대한 코리언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다.

### 3) 통일의 민족적 중요성: 분단의 피해와 민족발전 저해

<표 4. 한(조선)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

분류	한국인	탈북자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재일조선인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	93.4	94.5	65.7	59.8	87.9
다소 피해를 입었다.	5.6	3.4	29.6	32.8	10.2
피해를 입지 않았다.	0.4	1.8	4.7	4.0	0.6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들은 모두 분단과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피해의 강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한국인’과 ‘탈북자’는 다른 코리언들보다 피해의식이 더 높게 나타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인’과 ‘탈북자’에게 있어 분단과 6.25전쟁은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코리언들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강도는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으로 극동지역의 코리언들 중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6.25전쟁에 참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재중 조선족’(65.7%)보다 ‘재일 조선인’이 가장 높다는 점(87.9%)이다. 재일 조선인이 재중 조선족과 재러 고려인들에 비해 가장 비율과 강도가 높은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총련과 민단의 대립, 한-일관계 및 조-일관계로 인한 피해 등 다른 코리언들에 비해 분단체제의 적대성을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확인하였듯이, 2002년 고이즈미 방북 때 제기된 일본인 강제 복송이라는 상황 속에서 일본 내의 극우 반복 정서로 인하여 재일 조선인이 사회적 폭력을 당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표 5. 한(조선)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분류	한국인	탈북자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그렇다	88.2	92.7	82.2	81.0	83.1
아니다	11.4	7.3	17.8	18.0	15.0

<표 5>에서 모든 코리언들은 분단을 민족 발전의 저해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 탈북자, 재중 조선족 각각이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묻는 질문의 응답 비율과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비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분단체제의 지속 기간이 60여년을 지나면서 직접적인 상처의 당사자들이 줄어들었고, 따라서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분단체제로 인한 피해의 강도가 그 만큼 약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재러 고려인의 경우는,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물음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2.6%였다. 그런데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라는 응답에 대해 그렇다는 비율이 81.0%라는 점에서 11.6%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젊은 층에서 분단이 민족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코리언들은 분단이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였고 현재까지도 그렇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모든 코리언들은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민족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였고 따라서 민족 발전을 위해서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리언들은 또한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적대성’을 재생산하며,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요컨대 코리언들은 분단을 민족 발전의 장애물이자 현재까지 민족적 피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근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의 민족적 중요성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4) 통일의 국제적 중요성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표 6.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분류	한국인	탈북자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매우 그렇다	30.9	48.6	34.3	23.6	41.1
그렇다	58.5	46.8	58.2	67.8	47.1
그렇지 않다	9.2	4.6	7.4	7.1	9.2

먼저 ‘한국인’은 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해 89.4%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였고, 탈북자의 경우에는 95.4%, 재중 조선족은 92.5%, 재러 고려인은 91.4%, 재일 조선인은 88.2%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코리언들은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여전히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이라는 정세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국가들에 거주하고 있는 재중 조선족, 재일 조선인, 재러 고려인은 한(조선)반도의 분단과 동북아의 긴장 및 대립이 갖는 상관성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리언들은 통일인식에 있어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압도적으로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중요하다는 코리언의 인식이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 대한 판단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코리언들이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국제적 정세에 따라서 평화의 위협을 요소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이 같은 인식의 차이를 잘 드러낸다.

<표 7.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류	한국인	탈북자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5.4	2.8	6.4	4.3	13.7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	29.7	39.4	18.2	34.4	23.2
미국이 남한,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	13.0	8.3	<b>60.3</b>	17.8	15.3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	14.0	11.9	10.8	3.7	6.7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33.5	37.6	4.4	32.8	21.0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 있어서 ‘재중 조선족’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대답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재중 조선족’은 다른 코리언들보다 “미국이 남한,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압도적인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재중 조선족을 제외한 나머지 코리언들은 평화의 위협 요소를 한반도 내부의 적대성에서 그 요소를 찾는 반면에, ‘재중 조선족’이 “미국이 남한, 일본과 함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의 위협 요소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은 평화 위협 요소를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 위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재중 조선족의 인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동북아에서의 냉전의 질서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로 대체되어 동북아 국제적 질서에서 중국이 대립의 중심적인 축이 되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이 동북아 평화의 위협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다른 시각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코리언들이 거주하는 국가와 자신들의 살아온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코리언들이 거주하는 국가가 남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대립의 정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이 동북아 패권의 중심에서 대결하는 가운데 한·미·일의 정치·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속하는 코리언들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재중 조선족’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코리언들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이라는 정세적인 측면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구조적인 측면과 정세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게 드러나는 것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평화 위협에 있어서 한반도 분단을 구조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코리언들의 평화 위협의 요소로 정세적인 요인을 다른 한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코리언들은 한·미·일의 정치적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정세적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평화 위협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재중 조선족’은 평화 위협의 요소를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체에서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통일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요소이다. 코리언들이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국제적 정세에 따라서 평화의 위협을 인식하는 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평화위협 요소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차이가 결국은 분단 극복의 장애 대상으로 각기 다른 국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분단과 통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동북아 정세와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적대성이 코리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코리언들이 한(조선)반도의 분단이 역사적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분단이 민족 발전의 장애물이자 현재까지 민족적 고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근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민족적 중요성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통일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나오는 말 : 분단 극복에서 코리언의 역할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월경(越境)하는 해외 이주민이 아니다. 그들은 일제 식민과 남북 분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야 했던 강요된 이산의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식민과 분단의 역사가 초래한 상처를 남북의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들이 남북의 주민들과 함께 역사적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분단 극복과 통일은 남북의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과 분단 체제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남북의 주민들과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포괄하는 한(조선)민족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분단 극복에서 코리언의 역할은 우선 코리언들은 분단을 극복하는 데 있어 남북이 미처 자각하지 못한 여러 지점들을 새롭게 일깨우는 데 있다. 분단 60여년이 지나면서 남북은 체제이데올로기의 극심한 대립뿐만 아니라 생활습성이나 가치-정서-언어의 이질화 때문에 서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식적, 정서적 거리감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분단은 단순한 체제 대립을 넘어 남북 주민의 정서와 감수성 등 일상적 삶의 문화를 심대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코리언들은 남북의 직접적 대립을 벗어난 거주국에 살면서 사회주의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에 모두 익숙하기 때문에 남북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단 극복과 통일 문제를 사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분단-통일 의식은 분단 체제에 익숙한 남북 주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점들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코리언은 분단 극복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전혀 다른 이질적 문화나 관습들과 접촉하면서 겪은 코리언들의 문화적 변용들은 남북은 물론 동북아 국가들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문화적 자원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분단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존재다. 이들은 양자를 매개하면서 분단 극복의 과제를 동아시아 각국의 문제로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각국의 소통과 연대, 그리고 문화적 교류와 생산적인 만남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sup>37)</sup>

37) 김성민·박영균, 「분단 극복의 민족적 과제와 코리언 디아스포라」, 『대동철학』 제58집, 2012, 54쪽.

## 분단의 책임과 분단극복의 정책적 방향 비교

김종곤(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 1. 들어가며 : 분단의식 연구의 필요성

중, 일, 러 코리언 디아스포라들은 대부분 일제 식민지 지배 시절 강제이주 되거나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이주한 1세대 혹은 그들의 후손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일제 식민지 지배가 낳은 국권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민족의 이산과 분단 역시 고통스러운 역사적 기억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60여 년 동안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에서 한-미-일의 남방삼각 국가와 조-중-러(구 소련)의 북방삼각 국가 간의 정치, 군사적 갈등관계는 한(조선)반도에 거주하는 코리언뿐만 아니라 재미한인을 포함한 주변국가에 거주하는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나아가 1990년대 동구권이 붕괴되고 미-소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에도 남북의 분단현실은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중심의 패권경쟁의 구도 속에서 지속되면서 한(조선)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코리언뿐만 아니라 해외 디아스포라에게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조선)반도의 분단문제는 남-북의 관계로만 환원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코리언의 분단의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그것이 거주국 내에서 구체적인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유동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삶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그것에 관여하는가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집단 내에서 개개인의 의식이라는 것은 개체가 가진 특이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설령 집단의 의식을 관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작업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분단의식의 형성 요인들을 추적한다는 것은 불안정할지라도 뒤틀리고 왜곡된 지점, 혹은 화해와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를 제공하여 미래계획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작업은 코리언의 분단의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과 유념해야 할 점을 알려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그것은 무엇보다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코리언들의 분단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코리언의 분단의식 연구방법과 통일정책에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에 따라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지속의 책임이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 중 어디에 있으며, 또 남북으로 한정하였을 경우는 어떠한가라는 두 물음과 구체적인

분단지속의 이유를 묻는 물음을 통해 코리언의 ‘분단의식에 미치는 요소들’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한 요소들을 유념하면서 둘째, 분단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고쳐야 할 점에 대한 코리언들의 응답을 통해 코리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단극복을 위한 상호소통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 대북봉쇄정책과 대북경제지원 그리고 분단극복을 위한 현재적·필수적 과제를 묻고, 이를 통해 코리언들이 생각하는 ‘분단극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결과로 부터 분단극복의 가능성을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 2. 분단의식에 미치는 요소들 : 정세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

본 장에서는 ‘분단 극복의 장애’요인을 주변국을 포함한 물음과 남북으로 한정된 물음 그리고 구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물은 질문을 비교하여 코리언들의 분단의식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분단의식의 미치는 요소들을 찾고, 그로부터 실천적 함의와 분단의식 연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표 1.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 (단위:%)>

	한국인	탈북자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재일조선인 <sup>38)</sup>	재미한인
남한	1.6	2.8	9.8	2.5	1.9	2.5
북한	<b>33.7</b>	<b>33.9</b>	<b>18.2</b>	<b>54.9</b>	<b>31.8</b>	<b>37.5</b>
미국	21.8	12.8	<b>66.3</b>	<b>26.1</b>	<b>28.3</b>	11.1
일본	2.4		3.7	2.5	6.1	1.9
중국	<b>34.7</b>	<b>47.7</b>	2.0	1.2	6.7	<b>43.8</b>
러시아	1.0			1.5	1.6	

‘통일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를 코리언들에게 물었을 때 한국인, 탈북자, 재미한인이, 그리고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이 비슷한 응답경향을 보이는 그룹을 형성한다는 점이 제일 크게 눈에 띈다. 한국인과 탈북자 그리고 재미한인은 공통적으로 ‘중국’(34.7%, 47.7%, 37.5%)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두 번째로 ‘북한’(33.7%, 33.9%, 37.5%)을 많이 선택했다. 반면 재러 고려인과 재일 조선인은 ‘북한’(54.9%, 31.8%)을 가장 많이 선택하면서, 두 번째로 ‘미국’(26.1%, 28.3%)을 많이 선택했다.

재중 조선족을 제외한 코리언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일관되게 생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탈북자는 구체적인 탈북이유가 어찌되었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북의 체제에 대한 문제로 전치시켜 정당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남한에서의 적응과 국민되기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기검열은 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의 함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남-북 관계의 악화는 남한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분류되면서도 때로는 북과 동일시되는 자신들의 삶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삶과 연관되기에 북에 분단의 책임을 돌리는 경향을 더욱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탈북자가 북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남-북 관계와 남한이라는 ‘공간’에서 생산되는 적대성과 그로 인한 동일화 욕망의 좌절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의 전치가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38) 재일조선인의 17.8%가 중복응답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복응답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지만 그것이 맥락 상 유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포함시켜 논의하도록 한다.

반면 재일 조선인은 탈북자와 다르게 동일화의 욕망이 작동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들은 식민지 국가에 살고 있는 피식민지인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국가폭력과 사회폭력에 노출된 삶을 살아왔다. 이러한 폭력의 강도는 조-일 관계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고이즈미 방북 이후 발생한 극우보수들로부터의 사회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점은 <표 1>에서 보듯이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을 선택하는 비율이 불과 6.1%밖에 되지 않으면서 '북한'을 선택하는 비율은 모든 코리언들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높다는 것이다. 이것을 단지 재일 조선인이 거주국인 일본을 분단지속의 책임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것은 재일 조선인 사회 내에 국적으로 인해 형성되어 있는 또다른 남북분단의 양상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표 1>에 대한 물음을 국적별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국적의 33.6%와 일본국적의 40.0%가 '북한'을 선택하는 반면, 조선국적의 4.0%만이 '북한'을 선택하였다. 그렇다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국적='북'국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 남북에 대한 호감도에서 조선국적자들이 다른 국적자들 보다 더 많은 비율로 북에 호감이 간다고 응답하고 있다.<sup>39)</sup> 오히려 이것은 재일 조선인 사회에서 남-북 분단의 양상이 오버랩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재일 조선인은 한(조선)반도의 분단과 더불어 이중의 분단을 경험하면서 북을 통일의 장애국가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일 조선인의 분단의식은 남-북과 조-일 관계에 따른 폭력의 경험과 경험주체의 국적에 따라 인식이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재러 고려인의 경우 재일조선인과 다르게 이러한 폭력을 경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탈북자와 같이 동일화의 욕망이 좌절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러 고려인은 나머지 코리언들 중 '북한'을 선택하는 비율이 54.9%로 가장 높다. 이것은 한-조-러 간의 경제협력의 난항을 겪으면서 '북'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결과라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러는 에너지 개발, TKR-TSR(한반도 종단열차-시베리아 횡단열차) 연결사업, 항공·우주 산업을 주요골자로 적극적인 경제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하지만 열차 연결사업과 같이 조선을 배제하고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있어 최근 북의 핵개발을 둘러싼 조-미, 한-조 대립은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재러 고려인들은 그러한 책임을 북으로 돌리면서 통일의 장애국가로 북을 많이 지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재러 고려인들이 분단 지속의 원인을 사고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북-러 간의 관계와 그것이 이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재중 조선족은 이들의 18.2%만이 '북한'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재중 조선족과 북의 역사적 관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재중 조선족은 6.25 전쟁에서 항미원조의 기치를 들고 직접 참전하기도 하였으며, 전쟁 이후에도 북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것만이 북을 적게 선택하고 있는 이유로 볼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은 오래전부터 중국 내 소수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재중 조선족은 자치주를 꾸리고 살 만큼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소수민족으로 살아왔다. 그런 만큼 재중 조선족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따라서 '중국'을 분단지속의 원인으로 많이 꼽고 있는 한국인, 탈북자, 재미 한인과 다르게 조-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보면서 그 원인을 오히려 '미국'(66.3%)으로 많이 돌린다. 특히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9.11 사건 이후 펼쳐지고 있는 신안보전략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러한 정세는 재중 조선족의 역

39) '둘 다 똑같다'라는 응답도 60%나 된다.

40) 통일인문학연구원,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참고.

사의식과 결합하면서 ‘미국’을 통일의 장애국가로 많이 지목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국인, 탈북자, 재미 한인은 오히려 반대로 ‘중국’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들도 동일하게 미-중 패권경쟁의 맥락에서 중국이 여타의 주변국과는 다르게 조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오히려 분단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조선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개방적인 정책으로 선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변국과의 마찰을 야기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탈북자의 경우는 한국인, 재미 한인과는 다른 요소가 개입한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북을 떠나 대다수 체류하는 곳이 중국인데, 이들의 신분상 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중국공안의 단속을 피해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그렇기에 이들이 ‘중국’을 많이 선택하는 것은 그러한 체험적 요소가 개입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코리언들의 분단의식에는 무엇보다 국제적 정세(남북관계, 거주국과 남 혹은 북간의 관계, 거주국과 주변국 간의 관계)가 가장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정세변화가 일방적으로 분단의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거주국이 내에서의 실존적 삶과 개별적인 집단의 체험이 형성한 역사인식 혹은 정서 등의 개별적인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즉, 코리언들은 각자의 거주국에서 신체에 आरो새겨 내면화하고 한편으로 사회화하는 아비투스(Habitus)에 따라 국제적 정세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그것은 곧 인식을 형성하며 나아가 거꾸로 현재의 아비투스를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리언들의 분단의식이 그러한 방식에 따라 항상 일관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비투스’ 개념이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형성 과정에서 ‘억압’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코리언들에게도 억압되어 배제된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41)</sup> 나아가 ‘억압된 것은 회귀한다’는 프로이트의 모토처럼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이들의 분단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리언들에게 ‘굳이 어느 한쪽에 분단지속의 책임을 묻는다면 남과 북 중 어디인가?’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굳이 어느 한쪽에 분단지속의 책임을 묻는다면 남과 북 중 어디인가? (단위:%)>

	한국인	탈북자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재일조선인	재미한인
남한	9.6	9.2	51.5	8.6	22.0	2.2
북한	88.6	89.9	48.5	79.8	55.7	58.1

이 물음에 재중 조선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리언들은 ‘북한’을 더 많이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탈북자는 각각 88.6%, 89.9%로 압도적인 선택비율을 보여주는 반면 재일 조선인과 재미 한인은 각각 55.7%, 58.1%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중 조선족은 비록 3%차이지만 오히려 ‘남한’을 선택하는 비율보다 낮다.

하지만 재일 조선인, 재중 조선족 그리고 재미 한인이 ‘북한’을 상대적으로 적게 선택하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재일 조선인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국적자는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북한’을 선택하는 반면 조선국적자는 이와 반대로 60.0%가 ‘남한’을 선택하고 있기에 이

41) 이것은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해방 후의 분단이 낳은 ‘국가=민족’이라는 리비도의 좌절을 코리언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에 따른 남방삼각과 북방삼각의 대결적 구도는 한(조선)반도를 남-북이라는 두 개의 국가로 구분지으면서 ‘민족’을 억압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한국이 조선적 재일 조선인을 북한주민과 동일시하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또한 ‘조선’ 국적이라는 것이 친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대북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동포애의 결여 문제로 이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재중 조선족 역시 남과의 관계 그리고 남의 대북정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들은 <표 1>에서 ‘북한’ 보다는 ‘남한’을 덜 선택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남한’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는 <표 1>에서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상당부분 ‘남한’ 선택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sup>42)</sup> 그 첫 번째 원인은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겪은 차별경험이라 할 수도 있으며, 두 번째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대북봉쇄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한국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 북을 대상으로 판단했을 때 한국과 북한이 국가 간의 대결적 구도에 있다할지라도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포애를 결여하고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중 조선족과 재일 조선인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대북정책의 방향에 따라 분단 지속의 책임 소재에 대한 생각과 같은 분단의식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재일 조선인들의 응답 중 무응답(4.1%)과 중복응답(18.2%)이 22.3%나 된다는 점에서 짐작하게 한다. 즉, 재일 조선인은 ‘북한’이 분단지속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한편으로 남에게도 문제가 있기에 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역으로 추론하기 위하여 재미한인 조사 시에는 ‘둘 다 동일’이라는 항목을 추가해보았다. 그 결과 재미 한인은 ‘둘 다 동일’이라는 답변을 39.7%나 선택하면서 ‘북한’을 선택하는 비율(58.1%)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코리언이 분단지속 책임을 물었을 때 압도적으로 ‘북한’을 선택하리라는 선입견을 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족’<sup>43)</sup>은 국제적 질서 체제와 거주국의 국가이데올로기와 같은 상징질서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고 코리언의 분단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코리언의 분단통일의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선불리 재단하거나 민족정체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민족’은 오늘날 적대적 구조로 점철되어 있는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저항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자.

<표 3.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는 이유 (단위:%)>

	한국인	탈북자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재일조선인	재미한인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19.8	28.4	<b>39.7</b>	<b>45.1</b>	<b>24.5</b>	<b>18.1</b>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b>25.0</b>	<b>31.2</b>	19.5	6.1	<b>20.7</b>	17.5
남한이 미국편에서 북한을 봉쇄하기 때	3.0	3.7	<b>27.9</b>	8.3	12.7	2.9

42) 단순계산으로 보면 표1에서 미국, 일본, 중국을 선택한 비율 72% 중 ‘남한’으로 이어진 것은 41.7%(51.5-9.8)이며, ‘북한’으로 이어진 것은 30.3%(48.5-18.2)이다.

43) 이 글에서의 ‘민족’은 일제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이라는 코리언의 특수한 역사 속에서 억압된 ‘민족적 리비도’의 의미로 사용한다.

문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	51.3	36.7	12.8	34.7	25.2	33.0

분단지속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한국인(51.3%)과 탈북자(36.7%), 재미 한인(33.0%)은 ‘북의 폐쇄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반면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재중 조선족(39.7%), 재러 고려인(45.1%), 재일 조선인(24.5%)은 ‘남과 북의 적대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거나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했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을 보이는 것은 재러 고려인이다. 재러 고려인은 <표 1>과 <표 2>에서 모두 북을 가장 혹은 더 많이 선택하면서 다른 디아스포라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북의 폐쇄성’을 직접 선택하는 비율이 한국인과 탈북자보다 낮으며, 오히려 ‘남북의 적대성’을 더 많이 선택했다. 물론 남북의 적대성에 있어 그 책임이 북에게 더 많이 있다는 의미로 선택을 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미 한인을 제외한 디아스포라(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들)는 ‘남북의 적대성’을 거의 1,2순위로 선택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분단 지속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현재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그러한 대립을 넘어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정서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일 조선인은 북의 폐쇄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지만 남북의 적대성과 불과 0.7%(25.2% vs 24.5%)로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러 고려인과 마찬가지로 해석가능하다. 즉, 재러 고려인과 재일 조선인에게 분단지속의 책임을 ‘국가명’으로 물었을 때는 북을 더 많이 선택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에는 분단문제를 민족적 관점에서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간의 적대성으로 보는 것 같다.

따라서 코리언들에게 있어 ‘민족’은 ‘분단극복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성을 극복하고 생성적 삶을 미래기획적으로 공동 구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분단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의 기초적인 의미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sup>44)</sup>는 ‘민족’이 가진 역동성을 가로막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한국인, 탈북자, 재미한인은 극동지역 코리언들과 다르게 ‘북의 폐쇄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과 탈북자, 재미한인은 극동지역의 코리언과 다르게 민족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한국인과 탈북자의 경우 예컨대 천안함, 연평도사건 등을 통해 공포를 환기시키고 적대성의 구조로 전치시켜 내면화하는 공간적 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sup>45)</sup>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재미 한인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재미한인 조사에 ‘북의 무력 사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재미 한인은 응답자 중 28.6%가 ‘북의 무력 사용’을 선택하여 이들도 마찬가지로 트라우마의 전치를 통해 국가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미국은 9.11 사건 이후 대테러정책을 수정하면서 ‘북=악의 축’으로 지목하였다. 9.11에 대한 공포스러운 기

44) 아직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식민트라우마, 분단트라우마, 그것과 착종되어 있는 국가·사회 폭력 트라우마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45) 그러나 탈북자와 한국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탈북자는 <표 1>과 <표 2>에서 북을 선택하는 비율이 한국인과 거의 비슷했지만 여기서는 ‘북의 폐쇄성’을 한국인보다 15% 적게 선택하면서 남북의 적대성을 약9% 정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 탈북자는 북에 친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재러고려인과 재일조선인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표 1>과 <표 2>에서는 ‘국가’에 대한 반감으로 드러나지만 여기서는 북=고향(친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조선)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사적 충돌을 보면서 공포가 환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역시 분단의 트라우마 혹은 9.11사태를 현재적 공포로 생산하면서 신체적으로 내면화하는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sup>46)</sup>

이상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동할수록 ‘민족’이 가진 역동성을 제한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는 분단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치유(healing)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둘째, 코리언의 분단의식 연구에 있어 코리언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간과한다면 그것에 의해 가려질 수 있는 ‘민족’의 유의미성을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각각의 코리언들의 분단의식을 연구할 경우에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 거주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떠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어떻게 착종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분단극복을 위한 상호소통적 가치 : 새로운 통일론의 가능성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공생’

여기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코리언들이 분단극복을 위해 남과 북에게 요구하고 있는 소통적 가치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코리언의 분단의식에 대한 오해와 그 연구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표 4. 통일을 위해 북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단위:%)>

	한국인	탈북자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재일조선인	재미한인
경제 개방과 발전	27.9	<b>49.5</b>	<b>48.5</b>	<b>24.8</b>	26.8	20.3
남북 교류 활성화	<b>38.5</b>	<b>38.5</b>	24.6	18.7	<b>28.7</b>	<b>24.4</b>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	<b>32.5</b>	11.9	<b>26.9</b>	<b>47.2</b>	<b>35.7</b>	<b>27.3</b>

재러 고려인(47.2%), 재일 조선인(35.7%), 재미 한인(27.3%, 핵 포기 27.6%)은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 선택 비율 가장 높다. 한편 한국인 응답자 중 38.5%가 ‘남북 교류 활성화’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32.5%는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재미 한인 설문에서는 오늘날 조-미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핵 포기’라는 선택지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재미 한인의 27.6%가 이것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대체적으로 북이 핵개발과 같은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핵개발’ 선택비율 포함)이 한(조선)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탈북자보다 더 북에게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이라는 항목과 같은 대외적 관계의 회복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 혹은 북과 주변국 간의 관계에 대해 이들의 거주국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면서 그에 따라

46) 재일조선인 역시 국가폭력, 사회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점에서 같은 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트라우마의 양상이 다르다.

이들에게 그 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 한(조선)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가 재중 조선족과 같이 '경제 개방과 발전'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못한 설명이 된다. 재중 조선족이야 다른 해외 디아스포라처럼 남북 혹은 북과 주변국 간의 갈등이 공포를 생산하거나 사회·국가적 폭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기에 이해가 된다. 재중 조선족은 지리적으로 다른 코리언보다 가장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면서 북의 식량난에 따른 상황을 지켜보았으며,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 오는 탈북자와의 접촉도 빈번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 개방과 발전'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늘날은 북이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시기이기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정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조선)반도에 살고 있기에 적어도 한국인과 같은 답변 경향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탈북 원인에 비추어 보거나 현재 북에 남아 있는 가족을 생각했을 때 북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점을 경제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두 번째, 북의 체제(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즉, 국제 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 가지 북의 군사·정치적인 정책 등이 이들이 보기에는 적대적인 자세로 대응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은 북의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탈북자와 재중 조선족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북의 정책에 대한 자기중심적 해석과 정세적 변화를 거주국 내부의 폭력으로 전화하는 것을 탈피하는 것이 좀 더 우애로운 통일 정책을 전개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역으로 적대성의 강화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며, 내부적 삶의 조건들을 평화롭게 한다는 점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요구들은 비단 탈북자와 재중 조선족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또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선택하는 비율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면서 남북교류가 줄어들고 그로 인한 경색국면이 급기야 군사적 충돌까지 가는 것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남-북 간 혹은 북과 주변국 간의 갈등 완화의 해법을 남북교류와 같은 상생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컨대, 코리언들은 북이 고쳐야 할 점으로 재중 조선족과 탈북자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북이 국제사회에서의 관계 회복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와 같은 응답경향을 보이지 않는 탈북자와 재중 조선족을 통해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은, 거주국에서의 적대성 생산 메커니즘과 북에 대한 이해방식의 변화가 가능하면 다른 형태의 통일론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통일을 위해 남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확인할 수 있다.

<표 5. 통일을 위해 남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단위:%)>

	한국인	탈북자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재일조선인	재미한인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	15.8	<b>26.6</b>	<b>39.4</b>	<b>28.2</b>	10.5	16.2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	<b>27.1</b>	13.8	16.8	17.5	14.6	18.1

외세 의존적 태도	21.4	22.9	36.4	17.8	21.0	20.6
대북 퍼주기 사업	15.4	22.0	2.7	20.6	17.8	21.0
대북봉쇄정책	16.8	12.8	4.7	8.9	23.2	23.8

‘통일을 위해 남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탈북자(26.6%), 재중 조선족(39.4%), 재러 고려인(28.2%)은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한국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코리언들이 <표 4>의 물음에서 한국과 현재 거주국을 비교하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탈북자는 한국인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경제적 부의 정도에 따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것이 한국이 고쳐야 할 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각을 통일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시켜 보자면 ‘경제’와 ‘민족’이라는 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코리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답변을 하고 있는 코리언들이 의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남한의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코리언들은 매우 높은 비율로 ‘민족’이 가지는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의해 훼손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이든 통일이라는 것은 2개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민족이 합쳐지는 것으로서 부의 정도가 어느 한 쪽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요소로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나아가 ‘상호호혜적’ 관계에 기반하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이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통일비용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한국인뿐만 코리언들에게서는 상당하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시장체제가 가지고 있는 물신화에 의한 가치 전도의 한 단면과 그것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대상 코리언들은 세계 자본주의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부터 급속도로 개혁개방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그것은 시장 교환 관계에서 형성된 ‘믿음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자본주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북을 비정상성으로 규정하지만 한편으로 ‘민족’은 정상성-비정상성의 이분법의 패러다임을 벗어난다.

특히 앞선 표들에서 북에게 분단지속의 책임을 많이 돌리는 재일 조선인과 재미 한인 조차 <표 4>에서 보듯이 ‘대북봉쇄정책’을 각각 23.2%, 23.8%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역시 남한이 같은 민족인 북의 삶을 고립시키는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도 탈북자는 ‘민족적 동포애’와 ‘집단주의’를 23.9%라는 동일 비율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재러 고려인과 재중 조선족은 각각 22.4%, 18.2%의 비율로 ‘민족적 동포애’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코리언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서 분단극복을 위한 요소들에 매기는 가치가 달라진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조사대상 코리언들이 자본주의 체제 혹은 적극적인 시장개방 체제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로 인해 훼손되는 민족적 동포애, 혹은 공동체적 삶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답변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의 힘’이다. 첫째, 타자(북)를 고정된 인식틀로 해석하여 차이를 비정상성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것은 ‘타자가 지닌 공포성’이 아니라 상징적 질서(국가)가 총동(민족)을 억압하고 만들어 내는 ‘공포’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공포의 효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둘째, 그러한 ‘공포’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지닌 효용성으로 인해 재생산되는데 이때 다시 한 번 은폐되어야 할 점은 바로 ‘공포로 인한 자기 파괴성’이다. 하지만 셋째, 억압-은폐 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균열을 만들어 내고 ‘이중의 부정’으로 살아남는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확정적’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를 북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으면서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공포를 생산한다. 여기서 북은 남과 같은 민족이라기보다는 절멸되어야 하는 ‘적’이 된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그 공포는 일상적인 삶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맞닥뜨리게 만들며 오히려 자신의 평온을 파괴한다. 생명은 자신을 파괴하는 이러한 자기 파괴성을 언어로서 재현하지 못할지라도 갈증과 같이 체감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그 갈증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생성이다. 그러한 점에서 ‘민족의 화해와 공생’이라는 분단극복을 위한 상호소통적 가치는 코리언의 분단의식 연구에 있어 은폐-균열-생성의 지점들을 포착하게 만드는 의미를 지니면서도 코리언들의 구체적인 삶을 ‘생성’적으로 만들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가치를 마련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4. 분단극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 : ‘남북교류의 확대’와 ‘신뢰성 회복’의 상호교차적 기능

그렇다면 코리언들은 분단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코리언들에게 한국의 ‘대북봉쇄정책 및 대북경제지원’과 ‘분단극복을 위한 현재적과제와 필수과제’에 대해 물었다.

<표 6. 분단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북경제지원 및 대북봉쇄정책이 필요성 (단위:%)>

분류		한국인	탈북자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재일조선인	재미한인
대북경제 지원의 필요성	매우 그렇다	18.8	22.9	36.0	13.2	24.8	15.2
	그렇다	<b>54.3</b>	<b>44.0</b>	<b>54.9</b>	<b>42.9</b>	<b>51.9</b>	<b>52.4</b>
	그렇지 않다	26.7	32.1	9.1	<b>43.6</b>	22.0	22.5
	매우 그렇다	3.8	18.3	7.1	3.1	2.9	2.2
대북봉쇄 정책의 필요성	그렇다	20.6	31.2	17.2	14.1	13.4	15.6
	그렇지 않다	<b>57.9</b>	<b>41.3</b>	<b>54.2</b>	<b>61.3</b>	<b>51.6</b>	<b>46.3</b>
	매우 그렇지 않다	16.2	9.2	21.5	19.9	28.0	14.6

<표 6>에서 보듯이 코리언들은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찬성(매우 그렇다 + 그렇다)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다. 하지만 ‘재중 조선족(90.9%) → 재일 조선인(76.7%) → 한국인(73.1%) → 재미 한인(67.6%) → 탈북자(66.9%) → 재러 고려인(56.1%)’ 순으로 그 비율에 있어 차이가 난다. 반면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반대(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비율 역시 높게 나온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재러 고려인(81.2%) → 재일 조선인(79.6%) → 재중 조선족

(75.7%) → 한국인(74.1%) → 재미 한인(60.9%) → 탈북자(50.5%)'순으로 그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코리언들은 대북경제지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과 대북봉쇄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50% 이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조선인, 재미 한인, 한국인은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찬성과 대북봉쇄정책에 대해 반대여론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탈북자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재러 고려인의 경우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반대(그렇지 않다) 여론이 43.6%로 다른 코리언들에 비해 높으면서 코리언들 중 가장 낮은 비율(56.1%)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봉쇄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은 81.2%로 코리언들 중 가장 높게 나오면서 둘 간의 격차가 약 25%가량 된다. 즉, 이들 중 약 25%는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반대하지만 대북봉쇄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선 재러 고려인이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이들이 앞서 분석한 것처럼 '경제적 가치'를 더 우위에 놓고 있다든지, 민족정체성이 약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격차는 왜 발생하는가? 추측컨대 한반도와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이 주로 한국과 이루어지면서 한(조선)반도에서의 주된 협력 국가로 '한국'을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한-러 경제협력은 그러한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북은 국제적 정세에 따라 그러한 협력적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도 크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봉쇄정책을 반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그것 역시 경제적인 맥락에서 이해했다고 할 지라도 '북의 주민=같은 민족'이 고통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굳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와 재중 조선족에게서도 다소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북경제지원'에 대해서 각각 66.9%, 90.9%가 찬성하고 있지만, '대북봉쇄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50.5%, 75.7%만이 반대하면서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는 재러 고려인의 경우와는 오히려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대북경제지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같은 민족 혹은 구체적으로 친지인 북의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것인 반면, '대북봉쇄정책'은 남북 혹은 북과 주변국 간의 정치적 관계로 해석하여 국가로서의 '조선'과 관련시켜 사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코리언들의 생각을 하나의 지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더 나아가 대북경제지원과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물음을 더 구체적으로 다양화시켰을 때는 모순되게 보일지라도 이들이 지닌 여러 층위로 분화되고 혼종 되어 있는 가치체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

<표 7. 남북 분단 극복을 위한 현재적 과제와 필수적 과제 (단위:%)>

분류		한국인	탈북자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제일조선인	재미한인
현재적 과제	남북 간 민간 교류	20.8	32.1	25.9	6.4	24.5	22.2
	경제 협력	14.4	32.1	21.9	18.1	7.6	20.0
	남북정상회담	14.8	20.2	24.6	12.6	11.8	12.1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30.3	6.4	23.6	45.7	27.1	25.1
	남북 간 문화 교류	17.8	8.3	4.0	3.1	6.7	15.6

필수적 과제	상호 신뢰성 회복	<b>46.7</b>	<b>31.2</b>	<b>33.0</b>	<b>36.2</b>	<b>29.9</b>	<b>42.5</b>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	12.4	<b>32.1</b>	20.2	<b>17.2</b>	9.2	13.7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12.0	18.3	14.5	9.5	9.6	10.2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 노력	9.4	7.3	6.4	11.0	<b>16.9</b>	<b>17.1</b>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b>18.6</b>	10.1	<b>25.9</b>	13.8	14.3	15.2

<표 7>에서 보듯이 코리언들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분단극복을 위한 현재적 과제로 많이 선택하는 항목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민간 교류’이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전쟁불안감’에 대한 코리언들의 표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해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 이것은 미래적 구상으로서 군사적 충돌 없는 평화로움과 적대성을 넘어 상호 간 왕래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적인 극복 과제’는 ‘미래에 대한 바람’과 동떨어져 사고 할 수 없다는 점과 남북의 분단극복과 통일은 곧 코리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코리언들이 선택하고 있는 분단극복을 위한 현재적 과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내포되어 있는 구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라는 것 역시 과거와 과거-현재를 연결하는 시간적 연속성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앞선 분석에서 밝혔듯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 디아스포라에게까지 현재적 공포가 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 속에서 겪은 고통, 상처가 과거로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단히 기억으로 남아 현재와 만나기 때문이다.<sup>47)</sup>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미래는 다시 현재가 되고 미래까지의 시간적 연속성은 과거 혹은 과거의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게 구성해내느냐에 따라 미래의 한(조선)반도 혹은 코리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과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 현재에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분단극복과 통일의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적 가치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그 비전적 가치는 어떠한가? 또한 그것이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형성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고정된 것이라 할 수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코리언들이 선택하고 있는 ‘분단 극복을 위한 필수적 과제’ 즉 중장기적 과제에서 일정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표 7>에서 보듯이 코리언들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 신뢰성 회복’을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신뢰성’이 남북 간의 분단극복을 위한 강한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것이 가진 추상성으로 인해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한 다양한 노력은 분단을 지속시키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제공하며, 나아가 그러한 계기들은 우연적일지라도 분단극복 ‘과정’을 우애로운 대화의 방식으로 형성하면서도 그 자체로 남북이 분단극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뢰성’은 관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오히려 서로 간의 ‘만남’, 현

47) 하지만 단지 역사적 트라우마가 직접적으로 겪은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6.25를 겪지 않은 세대들 또한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서 트라우마적 증상을 보인다.

재적으로 서로간의 적대성을 넘어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리언들이 선택하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간 민간교류’와 같은 응답들은 역으로 장기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현재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나가며 : ‘동일성의 공간’을 넘어 ‘차이와 접속의 공간’으로

이상의 논의에서 우선 코리언들의 분단의식은 남북관계, 남·북-거주국·주변국, 거주국-주변국에 따른 국제적 정세와 코리언들의 각각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인식과 거주국에서 형성된 상징질서와의 만남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코리언들의 분단의식은 정세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이라는 이중적 요인에 의해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간의 연속성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때로는 폭력을 동반하여 국제적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질적 변화를 야기하면서, 구조(structure)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적 구조는 시간 속에서 다시 구조화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민족’은 국가 체제 간의 적대성을 생산하는 상징질서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앞선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구조의 힘으로도 완전히 봉합되지 않는 균열의 틈 사이로 비집고 드러난다. 따라서 ‘민족’은 오늘날 고착화되어 있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저항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코리언들의 특수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강할수록 ‘민족’의 가능성이 가진 힘은 발휘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생명의 힘은 욕망의 억압을 통한 공포의 생산과 자기 파괴 그리고 그에 대한 은폐에서 발생하는 이중의 부정을 통해 체감적 갈등을 만들어 내며 민족의 화해와 공생이라는 가치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에 코리언들은 분단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남북의 교류를 통한 신뢰성 회복’과 ‘신뢰성에 바탕을 둔 남북 간의 교류 활성화’라는 이중적 이면서 상호교차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이것은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면서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민족’이 지니고 있는 저항적 가치를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와 함께 생성적 힘으로 전화시키면서 코리언들의 합력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물론 ‘민족’이 분단체제의 극복에 있어 지니는 가치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선언적 강조만으로 생명의 힘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민족’의 강조는 자칫 코리언 디아스포라들의 현실적 삶을 더욱 억압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동일성의 공간’이 그 모순으로 인해 발생시키는 ‘차이와 접속의 공간’을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을 예를 들면 이 둘은 해방 이후 한(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각각 국가를 세우면서 ‘국가≠민족’이 낳은 결핍된 국가라는 점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에 남과 북은 각자가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자인하면서 상대를 같은 민족이 아닌 민족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절멸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동일성의 공간은 자기 체제중심, 선형적인 종족 본질주의, 대한민국중심주의와 같이 ‘다름’을 부정하고 즉각적인 폭력으로 재단하면서 그 경계를 설정한다.

그러나 동일성의 공간은 권력이 주체를 대신하지만 차이의 공간은 권력중심의 관계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관계성을 생산한다. 곧 대화와 소통의 중심은 권력이 아니라 차이의 공간에서 생성된 주체에게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 트라우마는 동일성의 공간 속에서 권력에 의해 생산되는 현재적 공포를 경험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국가는 권력의 유지, 재생산을 위해 전쟁에 대한 공포를 유포하면서 한국인이 가진 트라우마를 악용해 왔다. 하지만 차이의 공간에서는 그러한 권력이 해체된다는 점에서 트라우마적 증상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와 소통은 서로가 가진 상처에 대한 공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치유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증오와 사랑의 변증법적 관점에서 분단과 통일을 사유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은 서로 대립하면서 정세에 따라 정상회담, 남북민간 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이것은 증오와 사랑이라는 모순이 남북관계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의 공간은 그러한 동일성의 공간이 가진 모순 속에서 생산된다. 동일성의 공간에서는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이 허락되기에 의식과 욕망은 '분리'를 경험하지만, 차이의 공간은 신체 안에서의 의식과 욕망의 분리를 거부한다. 따라서 여기서 억압되었던 '민족'과 그것이 추동하는 가치들은 각각의 코리언들이 가지고 있는 변용된 정체성과 욕망들에 대한 승인과 수용 속에서 작동하고 나아가 코리언들의 역량 배가와 더불어 차이의 연결을 통한 '민족적 협력'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 3부 코리언의 민족정체성·분단·통일의식 심층조사연구방법론



# 코리언의 민족공통성과 심층조사연구방법론 : 민족정체성과 분단·통일의식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 1. 논의 지점들: 연구방법론과 민족공통성연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구방법론’이라고 하면 연구조사의 실질적인 기법이나 절차를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먼 블레이크는 ‘연구방법’과 ‘연구방법론’을 나누고 있다. “연구의 방법들은 어떤 연구 문제나 가설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질적인 기법이나 절차이다. 사회과학에서 그것들은 사람들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질문에 응답하게 하고 행위를 관찰하고 문서나 인간행위에 관한 다른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반면 방법론은 연구가 어떻게 진행 되는가 또는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sup>48)</sup> 따라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은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질적인 기법이나 절차가 아니라 ‘연구가 어떻게 진행 되는가 또는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여기서 다루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방법론 일반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이런 방법론 일반에 대한 쟁점이나 논쟁들에 대해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는 그 쟁점이나 논쟁을 ‘코리언의 민족정체성과 분단-통일의식조사연구’에 한정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연구방법론 일반에 대한 쟁점이나 논쟁에 대한 참조 없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논의 초점을 일반 이론이 아니라 ‘코리언의 민족정체성과 분단-통일의식조사연구’라는 제한된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다. 따라서 연구방법론 일반에 대한 논의들은 이런 논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참조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연구방법론을 둘러싼 일반적인 방법론 논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루어져왔던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관련 선행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방법론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의 논의가 이론 일반의 추상적 수준에서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데에만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는 이미 통일인문학이라는 연구 패러다임 위에서 제출된 바가 있다.<sup>49)</sup> 게다가 이런 방법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제출된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에 따라 2009-2010년 설문-통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sup>50)</sup>

48) Norman Blaikie, 이기흥, 최대용 옮김, 『사회이론과 방법론에 다가서기』, 한울, 2010, 22쪽.

49)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에 대한 글로는 박영균,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 『시대와 철학』 22-2, 2011과 이병수, 김종균, 「코리언 정체성 연구의 방법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코리언의 민족공통성과 심층조사연구방법론은 이미 제출된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 및 그에 따라 수행된 ‘설문-통계조사연구’가 보여주는 결과들을 실증적이지 경험적인 자료로 하여 선행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서 논의의 논증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 ‘설문-통계조사연구결과’이며 이런 실증적 검토 과정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심층조사연구’의 진행 방향과 기획-설계에서의 방법론적 관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들의 문제: 두 가지 문제들의 대립

오늘날 세계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경이라는 경계 속에서 벗어난 다양한 ‘존재들’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뒤섞임과 전파-잡종의 문화들을 출현시키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전통을 거부하고 ‘탈민족’, ‘탈국가’의 출현에 주목하면서 ‘다문화주의’적이면서도 ‘탈식민지주의’적인 다양한 인종적, 민족지학적 연구들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연구방법에서도 단순한 표본들의 평면적 수치를 양화하는 양적 조사연구가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내면적 깊이를 추구하는 질적 조사연구로 향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코리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 또한, 전통적인 ‘설문-통계조사방식’보다는 ‘구술-면접’과 같은 ‘심층조사방식’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경향의 이동은 기존의 방법론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반성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연구 방식 자체보다도 기존의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보다 간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민족 대 탈민족’,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는 대립적 문제들은 각기 자신이 연구해 온 연구전통, 예를 들어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나는 전통 속에서 선택적으로 취해지면서 그 두 가지의 대립적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한계나 문제들에 대한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코리언들,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코리언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상호 상반된 ‘문제들’<sup>51)</sup>을 가지고 대립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첫째,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선행 연구의 방법론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전통적 민족주의’와 최근에 등장한 ‘탈민족주의’라는 대립적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대립적 문제들은 ‘정체성=동일성’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 민족주의는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

50)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에는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설문-통계연구결과’를 연구한 결과가 ‘한국인’, ‘탈북자’, ‘재중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순으로 담겨 있다.

51) ‘문제들(Problematic)’은 가스통 바슐라르 이후, 칸길렘-알튀세-푸코로 이어지면서 사용한 개념이다. 알튀세는 “주어진 텍스트 내에서 요소들을 실제적으로 사유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되는 문제들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사유의 문제들은 총체로서의 사유의 추상이 아니라 한 사유의 그리고 그 사유의 가능한 모든 사유들의 구체적이고 결정된 구조”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그 이데올로기 자체의 문제들이 그것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말하고 있다(Louis Althusser, 고길환, 이화숙 옮김, 『마르크스를 위하여』, 백의, 1990, 80-81쪽). 여기서는 이런 개념을 차용하여 기존 연구들의 내재적 경향에 대한 징후적 독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징후적 독해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적 조건들에 대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와 약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라는 개념을 차용한 것은 코리언에 대한 기존 연구 방법들이 출발하는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분석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제들이라는 개념을 ‘주어진 대상을 연구하는데 그것의 열개를 주는 틀(framework)이면서 그것들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조건들(conditions)’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언들이 거주국의 문화나 언어와 다른 고유한 '특징', 예를 들어 핏줄이나 언어, 문화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민족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탈민족주의자들은 1990년대 세계화 속에서 디아스포라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경험과 문화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민족정체성'은 해체되었으며 오히려 그들은 혼종적인 문화를 가진 '탈민족적 존재들'이라는 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이 애초에 출발했던 문제 제기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양자의 대립을 본다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뿌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민족정체성'을 혈연이나 언어, 문화 등, 어떤 하나의 동질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 방식이 '설문-통계'이든 '면접-해석'이든 간에 동일하게 어느 하나의 지표나 잣대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정체성의 강화 혹은 약화 경향을 찾아내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착되고 있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온전한 의미에서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아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전통적 '민족주의'는 '코리언'이라는 정체성을, '탈민족주의'는 '디아스포라'라는 '혼종성'을 따라 연구를 기획하고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2)</sup> 따라서 필요한 것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이중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연구기획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연구의 기획과 데이터들에 대한 설명 또는 해석을 제공하는 '정체성'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제시하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 프레임은 일차적으로 '정체성'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일상적 습관으로부터 온다. '정체성(正體性)'에 대한 우리말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그 특성을 가진 존재'이다. 또한, 영어나 독일어에서 정체성은 identity 또는 Identität로, '동일성(同一性)'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정체성'과 '동일성'은 상호 중첩되면서 하나의 의미계열을 형성한다.

즉, 우리의 일상어법 상에서 쓰이는 언어적 맥락에서 보자면 '정체성'은 특정한 존재를 그것이게 하는, 그 존재가 가진 '고유성'(본질적 특성)과 그 존재의 통일성 또는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특성의 '일관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민족정체성'을 '하나의 민족적 집단으로 묶어주는 동일성'이라는 틀에서 바라보며 그들을 묶는 '동질적 특성'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동질적 특성'을 규정하는 것은 그것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연구자 자신의 위치와 관점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연구자는 '동일성-동질성'으로부터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의미들을 배제하는 폭력과 자신의 위치에서 타자를 보는, 위치 선점의 오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코리언 디아스포라 연구에 나타나는, 이런 대표적 사례가 '한국인중심주의', 또는 '자문화중심주의'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서 '민족과 국가'는 일치한다. 한국인들에게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국가정체성(states identity)'과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서의 정체성은 '동일성'이며 '국가(states)'와 '민족(nation)'은 구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민족'과 '탈민족'이라는 동일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에 근거한 대립적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이차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기존 연구들은 거주국의 국가와 한(조선)민족의 정체성을 대립적으로 설정한 이후, '조국 또는 모국이 어디인가'를 묻고 나서 그에 대한 답변의 수치만으로 '민족정체성'을 측정하거나 '거주국'과 '한국 또는 한반도'를 대립시키는 물음을 통해

52) 이런 연구경향의 변동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이병수, 김종군, 「코리언 정체성 연구의 방법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26-32쪽에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민족정체성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연구자들은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일치하기 때문으로, 암묵적으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소속정체성을 표현하는 국민정체성과 한(조선)민족의 민족정체성이 다르지 않으며 심지어 상호 대립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행조사연구들 중에는 ‘거주국의 국가와 한국이 축구경기를 한다면 누구를 응원하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민족정체성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에게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일치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르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코리언’이면서도 ‘디아스포라’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들의 민족정체성을 ‘국민정체성’이라는 우리의 습속 속에서 판단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가는 현실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정체성을 규명하는 연구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sup>53)</sup>

바로 이런 점에서 민족공통성 연구는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독특한 역사적이고 존재론적 위치에 근거하여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고자 했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을 ‘인지적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정서적 정체성’과 ‘신체적 정체성’이라는 3차원으로 나누고 이들이 중층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내재적으로 해석하는 조사연구를 기획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수행한 ‘민족공통성 설문-통계 연구 방식’은 근본적으로 양적 조사가 지니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애초 통일인문학연구단은 4권의 민족공통성 시리즈 발간사에서 “1차 설문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연구에 기초하여 심층면접 및 구술조사,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수행하는 2차 민족공통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sup>54)</sup>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연구로 나아가는 데 또 다른 장애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들’의 대립으로서, 조사방식과 연구방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대립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라는 근대 분과학문체계의 연구전통과 연결되면서 보다 넓은 차원에서 방법론적 대립을 반영하고 있다. 전자는 전통적인 실증주의적 경향을 따른다면 후자는 이에 대립되는 해석학적 경향을 따르며 여기에 ‘이해와 설명, 구조와 행위 등’의 대립들이 덧붙여지고 있다. 따라서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이나 통일-분단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방법은 한편으로 설문-통계조사 방식에서부터 특징인에 대한 ‘구술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고 있다.

그런데 조사 방식과 연구방법이라는 차원에서 크게 본다면 양적 조사는 주로 다수의 표본을 ‘얇게 조사’하는 ‘외연적 방식’이라고 한다면 질적 조사는 소수의 표본을 ‘두텁게 조사’하는 ‘내포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자가 표본이 많다는 ‘수의 대표성’을 통해서 그것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후자는 표본의 ‘질적 깊이’를 통해서 그것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근대적인 분과학문체계의 연구전통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연구의 장이 제공하는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계량적 방식과 설명을 선호했던 사회과학적 전통에 속한 연구자들은

53)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최근의 연구에는 박정균, 황승연, 김중백 「중국 조선족 정체성의 결정요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26-1,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2011, 박정균, 「중국조선족 정체성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2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의 문제는 ‘제3의 정체성’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 논리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구분한다면 그 정체성의 분류는 무한할 뿐만 아니라 ‘민족정체성’ 그 자체가 그 집단의 역사-사회적 삶의 변용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수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점이다.

54) 민족공통성 시리즈 4권은 다음과 같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코리언의 생활문화』, 『코리언의 분단-통일의식』, 선인, 2012.

양적 조사 방식에 따른다면 전통적으로 의미와 이해, 해석을 중시하는 인문학의 전통에 속한 연구자들은 질적 조사방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전통을 쉽게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이한 연구전통이 ‘상호 대립’을 통해서 자신의 연구전통 및 방법론에 대한 우위를 주장할 때 나타난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의 방법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 및 한계들에 대한 내적 성찰 또는 반성은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문-통계와 같은 ‘다수의 대표성’을 주장하는 조사방식은 ‘깊이’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객관적인 것으로 신뢰하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와 같은 ‘깊이 읽기’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조사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양적 조사방식이 조사대상자를 특정한 양적 단위로 분할하여 동등화하고 이를 계량화함으로써 그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적 고유성을 배제하는 ‘수의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구술’이나 ‘면접’ 등 ‘질적 깊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의 폭력’을 벗어나서 조사대상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깊이와 고유성을 볼 수 있는 조사방식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 다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개별적 독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내밀하게 천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수의 폭력’을 해제하거나 자신의 조사방식을 오히려 더 보편적인 것으로 내세우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런 대립 때문에 자신의 연구전통에 속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은 진행되지 않으며 상대와의 대립을 통해서 그것을 보다 보편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객관성의 신화’는 여전히 존속된다.

기본적으로 특정 조사연구의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은, 연구자 자신의 ‘연구전통’이나 ‘가치, 관점’이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연구자들은, 그가 수행하는 조사가 양적이든 질적이든 상관없이 실증적으로 주어진 데이터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는 ‘객관성의 신화’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것은 설문-통계와 같은 양화의 방식을 쓰는 연구경향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을 비판했던 ‘질적 연구’가 이것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이와 같은 객관화의 신화=실증성의 신화를 비판하고 개인의 심층을 파고드는 구술 및 현장 조사와 같은 연구경향에서도 이는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문학적이고 질적인 조사방식을 선호하는 민속지학 연구방법에서조차 조사자의 개입이 없는, 순수하게 자연적인 연행 환경조성을 추구하면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자신의 존재를 무화시킬 수 있는 연구자가 가장 훌륭한 조사자로 평가하고 있다고 이윤석, 김영희는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연구조사는 불가능하며 객관주의는 신화라고 주장한다.<sup>55)</sup> 또한, 앤드루 세이어도 양적 연구 또는 내포적 연구의 “결과가 전체 모집단의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그는 ‘양적 조사’를 선호하는 사회과학자들이 몇몇의 표본을 가지고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어떤 경우, 예외적이고 비대표적인 국면이 일반적인 과정과 구조에 관하여 통상적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6)</sup>

따라서 문제는 ‘관찰의 이론의존성’이라는 연구의 한계를 수용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양적 조사이든 질적 조사이든 간에 그 연구방법이 지닌 자신의 고유한 한계와 상호의 장단점이 드러날 수 있으며 ‘대표성 경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코리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회과학 대 인문학이라는 연구전통 속에서 형성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대립을 벗어나서 양자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내재적 비판으로부터

55) 이윤석, 김영희, 『구전이야기의 현장』, 이회, 2006, 99쪽.

56) Andrew Sayer, 이기홍 옮김, 『사회과학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11, 357쪽.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 3.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과 설문조사 결과: 두 가지 문제들의 문제점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은 다음의 세 가지 지점으로부터 연구의 출발점을 잡았다. “첫째, ‘관찰의 이론의존성’ 테제에 근거하여 ‘실증 연구’ 그 자체에 대한 재해석과 객관화, 이론적 성찰”, “둘째, 서구적인 탈식민주의론이 제기하는 디아스포라의 위치성, ‘정체성의 해체와 혼종성’이라는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민족사적 특수성’, ‘일제식민지와 분단이라는 민족적 리비도(national libido)의 좌절과 억압, 전치’ 속에서 이루어진 이산의 경험을 고려하는 ‘위치의 독특성’”, “셋째, 근대국민국가에서의 ‘민족-민족정체성’과 다른 한(조선)민족의 독특성에 근거한, ‘민족/탈민족’, ‘국가/탈국가’의 대립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민족공통성’과 이에 근거한 연구방법”이다.<sup>57)</sup>

또한,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의 기본적인 연구의 철학적 원리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과 이를 민족정체성에 변용하여 제기한 ‘민족공통성(national commonality)’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족적 공통성은 종족적 본질과 같이 사전에 규정된 불변적 관념이 아니라 한(조선)민족 구성원들의 만남의 질과 성격에 따라 상생과 공존의 삶이 체험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미래기획적 특징을 지닌다.” “둘째, 민족공통성의 형성은 코리언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구축해온 가치관과 생활문화에 대한 상호인정과 동시에 각자의 정체성을 변화시켜나가려는 의지를 동반할 때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민족공통성은 국적이나 이념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인지적 차원이 아니라 각자의 신체에 내면화된 생활문화와 정서가 부딪히거나 소통하는 비인지적 차원을 통해 형성되는 특징을 지닌다.”<sup>58)</sup>

바로 이런 점에서 민족공통성 연구 방법론은 첫째, ‘동일성으로서 민족정체성’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해체하는 기획 속에서 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족정체성은 ‘nation’과 ‘identity’의 결합으로, ‘national identity’는 민족적 실체를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동일성의 환상은 ‘nation’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오인으로서 ‘국민 또는 국가’라는 환상이 ‘identity’와 결합됨으로써 ‘국가주의적 민족정체성’과 ‘자문화중심주의’를 생산한다. 따라서 동일성의 환상은 ‘실체론’ 또는 ‘본질론’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 따르면 민족정체성은 혈통, 언어, 문화와 같은 특정한 지표들로 환원가능하며 이것들을 중심으로 코리언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 또는 교집합의 강화/약화에서 ‘민족 또는 탈민족’이라는 흐름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족공통성 조사연구는 특정한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설계하였다.

<표 1. 해외 거주 코리언들의 민족정체성 분포>

민족정체성	인지적 정체성	정서적 정체성	신체적 정체성
1	재일 조선인	재중 조선족	재중 조선족

57) 박영균,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 『시대와 철학』 22-2, 2011, 107쪽.

58) 이병수, 김종균, 「코리언 정체성 연구의 방법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39-41쪽.

2	재미 한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재러 고려인
3	재러 고려인		
4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미 한인	재일 조선인

그 결과,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은 특정한 하나의 잣대로 환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 또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재중 조선족은 정서 및 신체적 정체성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재일 조선인은 인지적 정체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재러 고려인과 재미 한인은 특정 부문에 대한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평균적 수준에서 순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민족정체성을 계량적으로 지표화하여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 어떤 특정한 잣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성으로서 민족정체성’이라는 테제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탈민족’이라는 테제 또한 기각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인지-정서-신체적 정체성이 그들의 역사-사회적 맥락과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서로를 연결하면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설문-통계 조사의 결과는 민족공통성 연구방법이 제안하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개념이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연구에서 기본적인 방법론적 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 하면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은 고정된 공통분모나 교집합, 예를 들어 눈, 코, 귀, 발, 손 중 어느 하나가 하나의 가족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닮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또한 어느 하나의 속성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설문-통계 조사 결과는 민족정체성이 ‘동일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아니라 ‘공통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민족공통성이라는 개념은 ‘national community’가 아니라 ‘national commonality’이다. ‘community’는 특정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 또는 교집합을 상징한다. 따라서 그것은 이미 그들 사이에 내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성, 즉 이미 거기에 속하는 개체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commonality’는 둘 이상의 개체가 서로 마주쳐서 만나거나 협력을 맺는 ‘common’에 의해 만들어지는 속성이다. 여기서 ‘common’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간단하게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고 할 수 있다.<sup>59)</sup>

<표 2. national community와 national commonality의 비교>

	national community	national commonality
시간성	과거형	미래형
속성	전통문화	변형문화
실체성	동일성	차이-공통성
정체성	인지적 의식(의식적 규정)	비인지적 요소(비의식-무의식적 공통감)
연구방향	고유문화 복원 및 정체성 확인	차이의 공감과 연대-생성적 정체성

59) 박영균,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 『시대와 철학』 22-2, 2011, 122쪽. ‘동질성 대 이질성’에서 ‘차이와 공통성’으로의 전환이라는 통일담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박영균, 「통일론에 대한 스피노자적 성찰」,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연구단 엮음, 『분단극복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2009를 참조할 것.

하지만 그렇다고 이와 같은 설문-통계 조사가 양적 연구가 지니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양적 조사연구는 1, 2, 3, 4위라는 순위화가 보여주듯이 고도의 추상화로 인한 분석의 명료함을 주지만 그만큼 '사실들'에 대한 배제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얇은 서술(thin description)'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질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전에 얻어진 양적 조사연구결과가 무용하다거나 오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논증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은 그것의 사회-역사적 맥락과 관련된 정체성의 중층적 결정구조라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조사 대 질적 조사의 대립은 이후 질적 조사에서 양적 조사연구 결과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편향을 낳는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 조사자들은 양적 조사연구가 가지고 있는 '수적 다수성에 의한 추상화'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나 '표피적 조사방식', '추상화의 폭력'을 제기하면서 '질적 조사의 우위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양적 연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표본의 대표성으로만 따진다면 질적 조사는 양적 연구에 비해 매우 빈약한 대표성만을 가지며 비록 구술이나 면접, 현장 조사 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애초 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데이터를 선택할 때, 연구자 또는 조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관련성'에 대해 무시하거나 배제함으로써 '미시적 현상'을 주류화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제 이주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재러 고려인들에 대한 구술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는 재러 고려인들이 러시아에 대한 매우 강한 반감과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재일조선인의 경우, 식민지 본국이었던 일본의 배제정책으로 인해 온갖 수난을 겪었으며 이에 저항해서 싸워온 처절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술-면접-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자들은 이들이 '차별 경험'이 많으며 '거주국의 다수종족 민족주의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 민족공통성 설문-통계 조사결과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정서적 정체성의 각종 지표 비교>

물음	답변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나는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본 적이 있다.	있다	40.7	42.3	<b>70.7</b>
	없다	59.3	55.8	27.7
거주국은 00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b>37.4</b>	15.0	22.3
	약간 그렇다	<b>44.8</b>	52.8	40.1
	그렇지 않다	12.8	30.4	31.5
	전혀 그렇지 않다	5.1	1.5	4.1
거주국 내 기타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가?	항상 느낀다	<b>40.1</b>	7.4	<b>22.3</b>
	가끔 느낀다	<b>44.4</b>	50.3	<b>61.1</b>
	느끼지 못한다	15.5	42.3	16.2

<표 3>에서 보듯이 강제 이주 경험이 있는 재러 고려인들은 재중 조선족의 차별 경험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거주국의 다수종족 중심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재중 조선족보다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모두다 훨씬 적은 숫자만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를 선택하고 있다. 게다가

재러 고려인들은 ‘조국 선택’에 대한 물음에서 재중 조선족 다음으로 높은 86.8%가 러시아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전복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질적 연구들이 다수를 조사할 수 없는 표본의 한계와 질적 연구에서 수반되는 ‘역전이 현상’, 그리고 우리의 통상적인 사고 때문이다.

사실, 이번 조사 결과는 실제 차별이나 탄압 정도에 따라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다름’이나 거주국의 주류종족 중심주의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통념을 부정한다. 재중 조선족은 ‘문화혁명’ 시기를 제외하고는 조선족 자치주를 형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재일 조선인’이나 ‘재러 고려인’들이 역사적으로 거주국에서 겪어온 역사적 트라우마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중 조선족은 재러 고려인이나 재일 조선인에 비해 ‘거주국의 주류 종족 중심주의’를 가장 많이 느끼며 ‘다름’의 정서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이것은 재중 조선족의 신체적 정체성, 즉 일상적 생활에서 몸에 배어 있는 전통적인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타민족과 접촉할 때 그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떤 연구자들은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표본의 외연적 크기로 말한다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은 특정 몇몇만을 조사한 질적 조사의 경우 더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질적 조사는 ‘내면의 심층’을 ‘깊게’ 조사한다는 점에서 분명 양적 조사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표본의 선정’과 ‘화자의 선정’에서 외연적 대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질적 조사가 비의식적인 영역들, 예를 들어 ‘다름’의 정서나 역사적 상처들에 대한 느낌에서 양적 조사보다 더 적절한 조사연구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적절한 조사연구는 ‘양적이냐 질적이냐’에 있지 않고 그것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그들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양적 조사나 질적 조사의 대립적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가 제안하는 것처럼 상호 보완적 조사연구를 기획해야 한다.

“연구방법이나 데이터의 측면에서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의 목표와 능력 간에는 근본적인 갈등이 없다. 갈등이 있다면 검증이나 이론 생성의 우위를 결정하는 일인데, 질적 데이터와 양적 데이터에 대한 열띤 논의는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무엇을 우위에 놓는가에 관계없이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 모두 증명과 이론 생성에 각각 유용하다고 믿는다. 우위성은 오로지 연구 환경, 연구자의 흥미와 훈련, 이론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에만 달려 있다. 많은 경우에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모두 필요하다. 질적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데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보충물 및 상호 검증으로 활용되며, 가장 중요한 점은 같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서 서로 비교되어 각각 이론을 생성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sup>60)</sup>

#### 4. 질적-양적 연구의 변증법적 결합: 해체적 독법과 데이터의 생산적 읽기

일반적으로 연구기획이나 방법은 연구 주제 및 대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연구 주제 및 대상에 따라 적절한 연구방법을 고안한다. 이것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연구 주제 및 대상에 따라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방식으로 나누

60) Barney G. Glaser, Anselm L. Strauss, 이병식, 박상욱, 김사훈 공역, 『근거이론의 발견』, 학지사, 2011, 35-36쪽.

어진다고 생각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통일-분단의식’과 같이 의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연구 주제이거나 한국인처럼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에 대한 조사방식으로 ‘설문-통계’처럼 ‘외연적이고 양적인 조사방식’을 선호하며 ‘트라우마’처럼 비의식적이면서 정서적인 연구 주제이거나 디아스포라처럼 상대적으로 비동질적 집단에 대한 조사방식으로 ‘내포적이고 질적인 조사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연구 주제 및 대상에 따라 선택하는 표본이나 질문의 양식들, 조사 방식이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먼저 ‘외연적이고 양적인 조사’는 표피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다 많은 표본들을 조사함으로써 그 연구 대상을 양적으로 확장하는 반면 ‘내포적이고 질적인 조사’는 비록 보다 적은 표본일지라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 대상을 질적으로 깊이 있게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연적이고 양적인 조사’는 ‘조국이 어디냐’ 또는 ‘한글 또는 한어의 사용 정도’와 같은 것들로, 그 지표들을 구성하는 반면 ‘내포적이고 질적 조사’는 ‘강제 이주’나 ‘문화대혁명’, ‘일본 내의 제일조선인 운동’을 하거나 겪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사의 정서적이고 내면적 양식’들을 통해서 그 지표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연구주제나 대상에 따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선택하게 되면, 문제는 설문-통계방식과 같은 양적 조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과 면접 구술 및 현장조사와 같은 질적 조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각기 자신의 내적 논리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기초하여 서로를 흡수하면서 지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만을 내세우는 대립을 재생산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 주제와 대상에 대한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를 선택하는 것은 절충적이거나 은폐된 대립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고유한 대상이나 주제들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대상이며 주제이든 간에 각각의 조사연구결과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 스스로 성찰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조사방법들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대립은 일반적으로 인문학자들과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데이터의 객관성’에 대한 우위 주장으로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양적 조사 방식의 표피적 연구방식이 지난 폭력성으로부터 벗어나 조사 대상자와의 심층적 소통을 통한 보다 나은 질적인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질적 조사 방식 또한 근본적인 ‘자료의 객관적 우위’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연구자는 여전히 이 조사의 기획-설계-소통-연구 과정에서 막강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의 응답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질적 조사가 양적 조사보다 나은 점도 있지만 그 역으로 더 안 좋은 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조사대상자와 조사자 사이의 ‘전이’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기도 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가 조사자에게로 전이(transference)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전이’하는 ‘역전이 현상’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러 고려인이나 제일 조선인의 ‘수난’을 ‘차별 경험’이나 ‘다름의 정서’, ‘역사의 망각’으로 보면서 설문-통계 결과를 의심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태도는 구술이나 현장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의 아픔에 ‘역전이’ 되어 그가 조사대상자의 트라우마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가 아니라 ‘사실의 재현’ 또는 순수한 데이터에 대한 열망을 고집하면서 이를 특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밖으로 나와서 조사연구 진행에서의 간극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모든 인식과 인식 내용의 텍스트화에는 오인과 오역의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지는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인식의 양태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기에 현장은 연구자에 의해 텍스트로 옮겨지는 순간 연구자가 바라본 현장이 된다.”<sup>61)</sup> 그러나 이것은 연구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조사대상자들 또

한 그들이 살아온 공간 속에서 자신의 역사적 기억을 재조정하며 재인식한다.

특히, 부로디외가 말했듯이 “실제로 응답자들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객관적 구조에 관한 (실천적) 지식이 아니라 그 구조의 승인방식에 관계”<sup>62)</sup>된다. 응답자들의 기억이나 서사는 스스로 주어진 구조 하에서 왜곡되거나 착종된다. 기억이나 서사의 구조는 언제나 현재를 통해서 재조정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질적 조사 자료의 특권화된 관점을 버리고 오히려 질적 조사가 지닌 장점, 즉 미시적이고 심층적인 균열들을 발견해 내는 것을 ‘양적 조사’에 결합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양적 조사를 검증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의 생성 방식으로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클레이저와 스트라우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연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가설을 테스트하는 양적 연구를 그 데이터에서 새로운 실질적 사실과 이론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꾸어야만 한다. 요약하면, 양적 데이터는 이론의 엄밀한 제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이론을 발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서 종종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많은 이론을 발견하는 데, 양적 연구를 사용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에서 “질적 데이터는 예비적 분석보다는 사실상의 결론적 분석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63)</sup>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합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존의 연구가 지닌 맹점을 해체하는 기획과 조사결과를 해체적으로 읽는 ‘해체적 독법’이다. 이 ‘해체적 독법’은 양적 연구만이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도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주어진 연구대상이나 데이터를 일관성과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통계자료 내부의 어긋남과 △화자 발언 사이의 어긋남, 그리고 △관찰과 이론 사이의 어긋남,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사이의 어긋남을 ‘해체적 독법’으로 읽어내면서 변증법적 과정을 매개해” 가는 것이다.<sup>64)</sup>

예를 들어 해외 거주 코리언들은 이산으로 인해 ‘거주국가≠민족’, ‘한국≠민족’, ‘조선≠민족’이라는 삼중의 어긋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한국인의 관점에서 읽는다면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된다. 왜냐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민족정체성과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한국=민족’은 너무나 당연하며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국이나 모국 물음에 별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연구기획과 설계 자체가 이전의 연구방식이 지닌 맹점을 해체 또는 성찰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안되어야 한다.

민족공통성 연구는 이런 맹점을 해체하기 위해서 ‘조국’과 ‘모국’이라는 물음을 조국-모국이라는 기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일상 어법상의 의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조국-모국’에 대한 그들의 어법적 맥락, 그리고 그들의 기표가 미끄러지면서 고정시키는 의미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그것은 이전의 조사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국’과 ‘모국’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물음으로써 그들이 가진 언어 사용의 맥락 속에서 그 기표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해체적 독법’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조국’과 ‘모국’에 대한 물음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는 우리의 언어사용 맥락을 해체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만 그들이 답변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난다.

61) 이윤석, 김영희, 『구전이야기의 현장』, 이회, 2006, 105쪽.

62) Pierre Bourdieu,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下』, 새물결, 2006, 972쪽.

63) Barney G. Glaser, Anselm L. Strauss, 이병식, 박상욱, 김사훈 공역, 『근거이론의 발견』, 학지사, 2011, 323쪽.

64) 박영균,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 『시대와 철학』 22-2, 2011, 130쪽.

<표 4.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조국'과 '모국' 선택>

선택국가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조국	모국	조국	모국	조국	모국	조국
거주국	<b>91.9</b>	24.9	<b>86.8</b>	21.8	16.9	3.2	8.3
조선(북)	4.0	<b>36.0</b>		9.5	4.1	2.5	0.3
한국(남)	0.3	8.8	2.5	15.3	<b>22.3</b>	<b>40.4</b>	<b>85.4</b>
한반도	1.3	<b>23.9</b>	0.9	<b>36.2</b>	<b>29.9</b>	<b>43.9</b>	6.0
거주국과 한반도	2.4	6.4	7.7	15.0	<b>20.4</b>	8.0	×

예를 들어 이전과 같은 연구 방식으로 본다면, 위의 <표 3>에서 '조국'과 '모국'을 구별하는 재중 조선족이나 재러 고려인의 '조국 선택'은 매우 적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의 인지적 정체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 중심주의라는 관점에서 그런 것이다. 우리말에서 조국과 모국은 사실상 구별되지 않으며 '나의 고향'은 곧 '조상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은 '나의 고향'과 '조상의 고향'은 다르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나의 고향'만을 물어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나의 고향'을 '태어난 곳'이나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민족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체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표화는 그들의 언어 사용 맥락 속에서 재위치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국이나 모국 선택'을 그대로 지표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의미체계 속에서 재위치시키는 것이다. '조국', '모국'이라는 기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는 우리의 언어 사용 맥락에서 일반화된 것일 뿐 그들의 언어 사용 맥락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조국'과 '모국'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조국'은 민족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인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해체적 독법'이 취하는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이루어진 기표, '조국'과 '모국'은 잠정적이고 편의적인 구별에 불과하다. 우리말로 특별히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구별해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국'과 '모국'으로 구별하고 한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조국', '모국'으로, 한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각기 현지어로 번역하여 재일 조선인은 '祖國', '祖先の国(母国)'으로, 재러 고려인은 'свое родиной(나의 고향)', 'родиной предков(조상의 고향)'으로 물어보았다. 또한, 재미 한인은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faterland(조국)'만 물어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진행해 보면 그들이 선택한 이유에서 각 집단의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주어지는 민족정체성의 인지적 요소들의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

<표 5. 조국과 모국 선택 이유>

	조국 선택 이유				모국 선택 이유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재미 한인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b>58.9</b>	29.1	15.6	<b>52.7</b>	25.3	12.6	13.1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4.5	<b>50.3</b>	4.1	4.8	3.7	12.3	1.3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8.4	7.7	<b>39.2</b>	30.5	<b>61.6</b>	<b>66.3</b>	<b>67.5</b>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14.8	.9	<b>20.4</b>	<b>56.8</b>	9.1	2.5	8.9

나를 돌보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3.4	1.5	1.3	2.9	0.3	1.5	
------------------	-----	-----	-----	-----	-----	-----	--

위의 <표 5>에서 보듯이 재중 조선족이나 재러 고려인들은 ‘조국’과 ‘모국’을 정확하게 ‘태어나서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구별하고 있다. 반면 재일 조선인들은 둘 다를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다수가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점은 재일 조선인들 또한 ‘조국’ 선택보다 ‘모국 선택’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재일 조선인들이 재중 조선족이나 재러 고려인들보다 ‘국민정체성’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재미 한인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을 건너가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을 ‘태어난 곳’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곧 동일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그들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의미의 결정체계, 기표 아래로 미끄러지는 기의들의 체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의미를 선규정하는 기존의 연구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콘텍스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밝혀진다. 하지만 이런 ‘해체적 독법’이 보여주는 결과는 이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 중심주의’에 대한 해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났다고 자부하는 연구의 경우에도 여전히 인 지적 정체성을 ‘언어사용’ 맥락에서 조사할 때, 범하는 오류가 바로 우리가 사용한 언어체계 그 자체라는 점도 드러낸다.

그것은 특정 단어의 기표와 기의가 통일적이라는 전제를 벗어나서 오히려 기표와 기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기의는 기표들 상호 간의 미끄러짐을 통해서, 즉 콘텍스트 안에서 주어진다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조국’ 또는 ‘모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과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을 구별함으로써 각각의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민족정체성’이라는 모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유대의 끈을 부여잡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재미 한인과 다른 극동지역 거주 코리언들을 비교해보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재미 한인과 극동지역 거주 코리언들은 그 구성에서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재미 한인의 경우 조사 대상자 315명 중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26명에 불과하다. 반면 그 외의 재중, 재러, 재일의 코리언들은 대부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다. 따라서 재미 한인은 민족정체성을 ‘조국’과 ‘모국’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게다가 재미 한인은 ‘조국 선택 이유’로 다른 코리언들에 비해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를 많이 들고 있다. 이것은 재미 한인들이 미국의 다문화주의적 정책 및 사회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어긋남을 확인하는 조사기획과 해체적 독법은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열어놓는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가중심주의는 ‘민족’과 ‘국민’을 대립적인 것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중심으로 민족을 사유하려는 경향”<sup>65)</sup>이다. 여기서 민족과 국민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민족과 국가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이 서로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중 조선족이나 재러 고려인들은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구별함으로써 양자의 어긋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포함시켜 낼 뿐만 아니라 ‘정(+의 관계)’를 형성해 낸다.

65) 이병수, 김종군, 「코리언 정체성 연구의 방법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2012, 99쪽.

그러므로 이런 해체적인 독법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정체성과 한(조선)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일치하는 우리의 통념이 ‘한국인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나온 잘못된 독해였음을 드러내면서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가 말하는 ‘더 많은 이론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가 말했듯이 ‘양적 연구’는 가설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 방향의 길을 열어 놓는 연구’로 위치지어 주면서 양적 연구가 열어 놓은 방향 속에서 질적 연구를 결합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합에서 변증법적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체적 독법이다.

그러나 해체적 독법은 ‘양적 조사연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양적 조사든 질적 조사든 상관없이 그 안에는 일정한 오인과 환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인과 오역은 조사자로부터도 조사대상자로부터도 온다. 부르디외가 말했듯이 조사대상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구조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수용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질적 조사연구에서 나타나는 전이-역전에 의한 오인과 환상은 그 답변의 순수성을 오염시킨다. 앞에서 본 ‘역사적 트라우마’와 거주국의 국가 및 사회적 폭력에 대한 답변자들의 전반적 답변 추세는 이들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인과 환상에 대한 해독제의 역할을 한다. 반대로 질적 조사연구의 결과는 양적 조사연구의 거시적이고 공시적인 구조의 폭력성에 갇혀 있는 미시적 맥락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문제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 우위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조사연구를 통해서 질적 조사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드러내고 조정하며 양적 연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즉 표본의 대표성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질적 조사연구의 장점, 즉 의미의 미끄러짐과 조사자 대 조사대상자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소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공통성 연구 방법론은 바로 이런 소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왜냐 하면 민족공통성은 ‘민족≠거주국’, ‘민족≠한국’, ‘민족≠조선’이라는 삼중의 어긋남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 국가중심주의’를 해체하며 ‘민족정체성’을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정체성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정체성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 5. 코리언의 연구 방향: 미래기획적 민족정체성과 코리언의 분단-통일의식

민족공통성 연구조사가 열어놓는 연구 방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코리언들 사이의 소통으로서의 연구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통일한(조선)반도라는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이번의 설문-통계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족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의 지표, 또는 확인 가능한 우리의 어법 속에서 가능한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저항하면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어떤 흔적이나 유대 감각 또는 욕망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제 식민지 이후 어긋난 ‘민족≠국가’의 단절과 그 단절이 낳은 역사적 트라우마 속에 내재하는 ‘정체성’이라는 점이다.

팀 에덴서는 세계화가 민족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펴면서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것들이 오히려 “장소 구속감”이나 “정박지”로서의 민족정체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정체성이 반드시 성찰적이고 자의식적인 일체화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 ‘제2의 천성’, 즉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거의 무의식적 가정들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체성의 무의식적 기반은 흔히 혼란과 탈구의 상황에서 수면 위에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6)</sup> 따라서 민족정체성은 오늘날 탈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탈민족주의자들이 비판하듯 ‘민족주의적 동일성’에 근거한 민족의 신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폭력의 위험성’ 또한 작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민족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연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욕망’, ‘장소 구속감’으로서의 민족이라는 고향의 이미지, 집단적 유대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 또한 그 민족이라는 환상적 공간 속에서 생존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대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족공통성에 근거한 민족정체성 연구가 향하는 방향은 민족정체성에 대한 집단주의적 집착이 아니라 세계화 속에 존재하는 코리언들의 민족정체성과 인류가 연대하는 미래적 비전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리엔 메시는 “진보적 공간감 progressive sense of place”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 그녀는 “지역이나 국가 고유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말하자면 일종의 장소의 혼)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들에 중심적인 과정과 흐름에 따라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이산 집단의 공동성을 구축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상호관계의 틀”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sup>67)</sup> 하지만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경우, 이런 세계화 속에서 인류와 민족적 연대의 방향에서만 ‘진보적 공간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경우, 그 역사적 존재의 특징과 거주하는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에 의해 다른 디아스포라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들의 민족정체성은 이중이 아니라 삼중의 어긋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의 독특함은 공식적 차원에서 ‘남북분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게다가 미-일-중-러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은 한(조선)반도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재외 거주 코리언들은 본국 거주민 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 약 10%로 세계 2위에 해당하며 그들 중 약 86.3%가 중국(1위, 2,336,771명), 미국(2위, 2,102,283명), 일본(3위, 912,655명), 구소련 국가들(4위, 533,729명)에 거주하고 있다.<sup>68)</sup> 게다가 중국, 일본, 구소련 국가들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은 역사적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경식은 코리언의 민족정체성을 ‘식민지 지배’ 및 ‘분단’과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내가 이 책에서 ‘조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셨기 때문이고 일본인들이 그 말을 가장 차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단된 두 ‘국가’의 어느 한 쪽이 아닌, 분단을 넘어선 하나의 ‘민족’에 속하는 자가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는 ‘민족’은 ‘혈통’이나 ‘문화’나 ‘민족혼’ 처럼 소위 ‘민족성’이라는 실체를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민족’은 고통과 고뇌를 공유하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지향함으로써 서로 연대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나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민족성’이라는 관념에서가 아니라 역사와 정치상황이라는 하부구조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sup>69)</sup>

따라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은 그들 민족의 고향이 ‘민족≠국가’라는 어긋남으로 구성된 ‘분단국가’라는 역사적 현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며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분단-통일’에 대한 조사연구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전의 선행 연구들은 이들을 분단-통일의 일 주체로 사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중 조선

66) Tim Edensor, 박성일 옮김,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이후, 2008, 75-77쪽.

67) 같은 책, 85쪽.

68) 김성민, 박영균, 「분단극복의 민족적 과제와 코리언 디아스포라」, 『대동철학』, 2012, 45-48쪽. 그리고 이하 논의되는 역사적-지정학적 위치의 독특성에 대한 논의 또한 이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69) 서경식, 임성모, 이규수 옮김,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2006, 10-11쪽.

족에 대한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에 대한 조사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민족공동성 프로젝트'는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이들 또한 분단-통일의 한 주체라는 점이 드러났으며 코리언들의 민족정체성 연구는 이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분단의 민족 발전 저해 정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체감도 비교 분석>

한(조선)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답변	한국인	탈북자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그렇다	88.2	<b>92.7</b>	82.2	81.0	83.1
아니다	11.4	7.3	17.8	18.1	15.0	
남과 북의 통일이 우리(해외동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37.1	<b>94.5</b>	83.5	88.7	<b>78.3</b>
	아니다	<b>61.5</b>	5.5	16.5	10.7	18.2

위의 <표 6>에서 보듯이 동북아 거주 코리언들은 분단이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통일이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지어 '남과 북의 통일이 우리(해외동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한 논리적 비일관성과 충돌이 있다. 왜냐 하면 한국인의 경우, 탈북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조선)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고 답변하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들의 논리적 일관성을 가로막는 그 어떤 억압이나 저해 요인이 있을 것이다.<sup>70)</sup>

그러나 이것을 논외로 한다면 동북아 거주 코리언들이 지경학적으로 한(조선)반도의 분단 현실과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으며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미 송두율은 '미래의 고향'으로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백낙청은 '범세계적 민족공동체'와 더불어 '복합국가'의 건설로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코리언들의 역사를 감안한다면 코리언들의 민족정체성 연구는 일제 식민지 치하 이후 어긋났던 '민족≠국가'라는 단절을 극복하고 통일한(조선)반도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때의 통일은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체제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넘어서 식민지 치하에서 한(조선)반도를 떠나야만 했던 재외동포들까지 포함하는 미래기획적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은 일제 식민지에서 국권을 상실함으로써 '민족≠국가'라는 어긋남을 경험한 사람들로, 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통일'이라는 점에서도 나온다.

<표 7.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한국인	탈북자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남북 분단	33.7	<b>36.7</b>	<b>40.7</b>	<b>69.6</b>	<b>51.6</b>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	12.2	4.6	9.1	6.4	7.6
경제적인 가난	5.8	8.3	12.5	1.2	7.6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b>39.3</b>	<b>35.8</b>	11.4	5.2	11.8

70) 이에 대한 논의는 김성민, 박영균, 「코리언의 분단-통일의식과 분단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언의 분단·통일의식』, 선인, 2012, 284-287쪽.

한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	6.0	14.7	<b>26.3</b>	12.6	8.6
-----------------	-----	------	-------------	------	-----

위의 <표 7>에서 보듯이 동북아 거주 코리언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이 ‘남북 분단’을 들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조선)반도에서의 통일은 단순히 ‘8.15’ 이후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조선)반도에서 ‘민족≠국가’라는 어긋남이 시작된 것은 일제 식민지였으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되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로 이산하였다. 따라서 동북아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은 ‘이산’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일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그리고 ‘분단’과 관련하여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한(조선)반도의 분단이 자신들의 삶을 더 좋게 할 것이며 우리 민족의 발전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분단 책임이나 통일을 위한 정책 및 통일의 가치나 방향에서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분단-통일의식이 ①거주하는 국내적 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②그들 국가 및 사회가 맺고 있는 국제적 관계, 그리고 ③남 또는 북과 그들의 관계와 ④남북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세’의 변화를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분단-통일의식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세’적 효과에 의해 그들의 가치 및 욕망 속으로 삽입되며 이런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미-중의 각축전과 북의 핵-미사일 개발들이 이들의 인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코리언들의 ‘분단-통일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과 북의 관계로서, 특히 정치적 관계이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은 ‘대북 경제 지원’에 찬성하면서도 ‘대북봉쇄정책’에 찬성하며 재러 고려인들은 ‘대북 경제 지원’에 반대하면서도 ‘대북봉쇄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매우 기괴하고 비일관적이며 왜곡된 여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국제 정세 및 한(조선)반도 내에서 남/북 관계가 이들의 인식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통일-분단 의식’은 그 자체로 그들의 합리적 판단 또는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동북아 코리언들의 분단-통일의식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재 인식이 아니라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주체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코리언들에 대한 분단-통일의식조사는 그들의 의식을 단순히 조사하여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정서가 어떤 국제적-국내적 환경, 그리고 남북관계에 의해 변동되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열망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정책 수립은 남/북만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동북아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은 남/북의 주민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상처와 정치-경제-문화적 이해가 결부되어 있는 분단-통일의 일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코리언에 대한 분단-통일의식조사는 그들의 민족적 유대를 남과 북의 분단을 극복하는 ‘민족적 역량’으로 바꾸어 내는, 민족적 협력 창출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북아 거주 코리언들은 <표 4>에서 보듯이 재중 조선족 중 23.9%가, 재러 고려인 중 36.2%가, 재일 조선인 중 43.9%가 남도 북도 아닌 ‘한(조선)반도’를 모국으로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민족정체성 또한 한(조선)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남=한(조선)민족, 북=한(조선)민족이라는 적대의 정치학을 벗어나 있으며 ‘통일한(조선)반도’라는 미래를 향해 있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정체성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거주 코리언들은 미래의 고향으로서의 통일한(조선)반도 건설에서 남과 북의 체제 대립을 벗어나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남과 북이 아니라 ‘통일한(조선)반도’라는 상상 속의 공동체를 향한다는 점에서 분단극복과 통일이라는 민족적 협력의 창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국가’라는 어긋남이 만들어내는 상호간의 갈등과 충돌, 적대적 감정을 민족적 고통과 아픔 위에서 미래 생산적인 민족적 협력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등 동북아 거주 코리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유대’에 근거한 욕망은 오히려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한 상처와 증오로 변화될 수 있다. 왜냐 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형제’로서의 특권을 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동일화가 유발하는 욕망을 미시적으로 검토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코리언의 분단-통일의식조사는 한(조선)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한(조선)반도의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서 그들의 분단-통일의식을 조사하고 그런 의식들의 기저에서 흐르는 욕망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속에서 민족적 협력을 창출하는 정치-경제-문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심층조사연구’는 코리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분단-통일의식에 대한 단순한 여론조사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오히려 보다 더 깊숙이 이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과 ‘역사적 트라우마’의 공유, 그리고 통일한(조선)반도를 창출하려는 욕망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 6. 심층조사연구방법론: 소통으로서 민족공통성과 심층조사연구방향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족공통성에 기초한 연구방법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결합시킨다. 또한, 이런 매개는 ‘새로운 연구의 길을 열어가는’ ‘해체적 독법’에 따른다. 따라서 이후에 진행되는 심층조사방법은 설문-통계조사의 결과에서 드러나는 각 양태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내재적으로’ 해석하면서 ‘타자의 타자성’과 ‘소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소통’, 즉 ‘communication’은 라틴어 커먼(common)과 그 동사형 커뮤니카레(communicare)에서 나온 말로 ‘공통으로 만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민족공통성’의 ‘공통성’과 어원을 같이 한다. 따라서 민족공통성이라는 개념 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연구방법론은 ‘소통’으로서의 심층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통’을 단순한 상호 대화 정도나 차이에 대한 관용과 이해, 그리고 인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면 이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이 보기에 진정한 대화는 ‘타자’가 아니라 ‘타자의 타자성’과 대화하는 것이다. 타자의 타자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언어규칙이나 문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와 전혀 다른 문법과 규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진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언어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대화’이며 ‘독백’라고 단언하고 있다.<sup>71)</sup>

“대화란 언어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자와의 사이에만 있다. 그리고 타자란 자신과 언어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자가 아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고진은 “가르치고-배우는 비대칭적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상태”<sup>72)</sup>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법과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통은 이 둘 사이에서 만들어져야 할

71) 柄谷行人, 송태욱 옮김, 『탐구1』, 새물결, 1998, 82쪽.

72) 같은 책, 14-16쪽.

‘규칙’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공통성에 따른 연구방법은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타자의 타자성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아비투스 자체를 반성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의 민족정체성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에게 ‘국가(states)’는 곧 ‘민족(nation)’이다. 특히,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에게 민족은 한(조선)반도 전체로 재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 즉, 분단국가’를 통해서 재현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정한 전치의 구조가 있다. 그것은 애초 ‘민족’이 ‘국가’에 대해 존재론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국가가 민족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은 대한민국=민족이라는 이 전치의 구조가 결여하고 있는 공백 및 틈을 드러낸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족(nation)’은 ‘국가’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지점을 드러낸다. 그것은 재현될 수 없는 어떤 유대적 정서로 남아 있다. “민족은 일상생활, 개인적, 집단적 기억, 공론 주제, 공유되고 동시적인 활동들, 장소의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의 복합체에 의해서 생겨난 감정 구조 안에 현존한다.”<sup>73)</sup> 따라서 이 감정은 일관되고 명료하게 정의될 수 없지만 ‘집’이라는 공간적 은유가 민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와 연결되듯이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그리고 “민족 공간의 여러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민족을 탁월한 공간적 실체로 확고히 하는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상상의 지리를 구성한다.”<sup>74)</sup>

그러나 문제는 한(조선)반도의 분단이 이와 같은 상징적인 상상의 지리를 구성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구의 근대 민족국가가 국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면 오늘날 한(조선)반도의 민족국가는 상징적인 상상의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것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채, 퇴화된 미래의 욕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국민’은 ‘민족’이다. 여기서 민족=국민, 즉 nation이다. 하지만 한(조선)반도에서 국민은 민족이 아니다. 여기서 국민은 분단국가의 신민(subject)이며 ‘국가’는 국민(nation)이 아니라 ‘states’이다. 따라서 코리언 디아스포라에 대한 심층조사연구는 첫째, ‘이산’과 ‘분단’으로 인해 억압된 목소리를 복원하면서 우리의 이런 전치된 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쥬디스 허먼은 ‘서사적 기억’이 아니라 ‘트라우마적 기억’에 대해 말한 바가 있다. 여기서 서사적 기억은 ‘국민 되기’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질서정연한 통사적 서사이다. 따라서 기억은 박제되고 특정한 기억들은 망각된다. “국민적 기억은 죽은 자가 어떤 국민으로 죽었는가를 말한다. 그리하여 죽은 자를 대신하여 말하는 발화주체로서의 국가는 무엇을 기억하고 망각할지를 지시한다.”<sup>75)</sup> 그러나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한다.’는 프로이트의 모토처럼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빠져 나갈 뿐이다. 따라서 심층적인 흐름을 읽어낸다는 것은 ‘국가=민족’이라는 국가주의적 담론과 기억들에 의해 억압되거나 유폐된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이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복원의 과정은 조사자의 특권적 연구 위치에도, 그것을 발화하는 조사대상자의 위치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르디외가 말했듯이 사회과학이 극복해야 하는 “인식론적 장애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장애”<sup>76)</sup>이다. 따라서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양자 모두에 대한 이중의 객관화가 필요하다. “객관화의 장소란, 보이는 관점, 모든 이론의 맹점, 즉 지식인의 장과 이해(또

73) Tim Edensor, 박성일 옮김,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이후, 2008, 163쪽.

74) 같은 책, 166쪽.

75) 김철, 『국민이라는 노예: 한국 문학의 기억과 망각』, 삼인, 2005, 8쪽.

76) Pierre Bourdieu,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下』, 새물결, 2006, 921쪽.

는 관심)의 투쟁이지만 … 우발적 사건에 의해 진실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일”도 있기 때문에<sup>77)</sup> “수집된 데이터만이 과학적 구축작업에 개입할 수 있다는 암묵의 규칙을, 조금씩 침범하는 것을 배우는”<sup>78)</sup>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심층조사연구에서 특권화되는 위치란 없다. 제일 조선인,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미 한인 등 그 어떤 위치가 특권화될 수 없으며 구술자의 관점과 기억이 특권화될 수도 없다. 앤드루 세이어가 말했듯이 서사는 그것의 방법론적 장점이 가진 문제가 있다. “서사는 그것이 서술하는 과정에 담긴 인과성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향을 약점으로 갖는다. 서사도 일부의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기는 하지만, 사회구조의 성질과 조건과 함의를 설명하는데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둘째, 서사는 사건의 연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몰두함으로써 단순한 시간적 연속과 인과관계 사이의 차이를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단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암묵적인 원인론들만을 제시하게 된다.”<sup>79)</sup>

따라서 둘째, 민족공통성 심층조사에서는 ‘양적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해체적 독법’에 기초하여, 조사자를 투명하게 만드는 심층조사보다 오히려 조사자의 개입 지점과 위치를 명료히 하는 것이 보다 낫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조사자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지우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투명한 간’에 대한 욕구는 ‘순수한 데이터’를 얻게 하기보다 오히려 개입의 지점을 무화시키는 효과, 그리하여 그 지점을 객관화할 수 있는 대상을 없애버리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양자 모두를 객관화하는 것이다.

즉, “연행 현장을 ‘실상’에 가깝게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중심으로 연행자와의 관계와 상호작용 양상을 성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다.<sup>80)</sup>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야 할 심층조사연구는 ‘조사자’의 위치와 관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 주체와 연행 주체 사이, 연행 주체들 사이의 분열된 시각”과 “연구자와 연행자, 혹은 연행집단 내부의 서로 다른 지평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양상” 그 자체를 드러내면서 그것 자체를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sup>81)</sup> 그리고 바로 이 때 조사자 또는 연구자의 위치와 관점은 양적 조사연구 결과에 의해 안내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 연구자 자신의 위치와 관점도 객관화될 수 있다.

‘설문-통계조사연구’와 같은 양적 연구가 지닌 장점은 구조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경향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흐름 또한 연구 설계와 데이터에 대한 해석의 ‘폭력’을 낳으며 연구자의 아비투스로부터 나오는 ‘오인과 환상’을 가지고 타자의 타자성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심층조사연구’는 양적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전복적이면서도 해체적인 읽기를 통해서 그 내적 목소리들의 다양성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국이나 모국 모두를 ‘거주국’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 둘 다에서 ‘한(조선)반도’를 선택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내야 하며 그들이 느끼는 자랑스러움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 국가폭력 및 사회폭력과 같은 트라우마에 대한 미세한 분열상을 포착해야 한다. 왜냐 하면 사랑이 오히려 증오가 되듯이 응답자들의 답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원인은 동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런 심층조사연구에서 피해야 할 것은, 조사연구가 진정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전

77) 같은 책, 919쪽.

78) 같은 책, 915쪽.

79) Andrew Sayer, 이기흥 옮김, 『사회과학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11, 372쪽.

80) 이윤석, 김영희, 『구전이야기의 현장』, 이회, 2006, 103쪽.

81) 같은 책, 101쪽.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술 및 대답은 그것 자체가 '치유(healing)'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치유'는 '치료(therapy)'가 아니다. 치유는 생명의 흐름, 힘을 복원하고 거기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치료될 수 없다. 그러나 치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때 빠지기 쉬운 것은 연구자 자신이 '역전이' 되거나 '전이'를 유발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구술-면접-현장과 같은 실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감정이입에 의해 그 스스로 '트라우마'에 빠져들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트라우마'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러 고려인의 강제 이주나 재일 조선인들의 국가폭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폭력경험에 대한 기억', 또는 '다름의 정서' 등 데이터의 결과를 '민족정체성의 훼손'이거나 그들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망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사회-역사적 맥락 안에서 자신들이 그 상처를 딛고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서적 정체성이나 인지적 정체성, 신체적 정체성이 우리의 생각을 빗겨나 있다면 그것은 이쪽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문제이다.

더구나 트라우마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폐되거나 억압되어야 하는 '상처'이다. 왜냐 하면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어기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빅 트라우마의 경우,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스몰 트라우마의 경우, 그것은 대부분 현실과의 타협 속에서 잠복된다. 물론 양자 모두에게 트라우마는 완전히 치유될 수도 사라질 수도 없다. 하지만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닌 2, 3차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형성에 따라 그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재일 조선인이나 재러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름의 정서'나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로 그들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망각했다거나 버렸다고 말할 수 없다.

문제는 그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맥락'이다. 따라서 그들의 관계가 다시 트라우마를 환기시키는 관계로 바뀐다면, 그것은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그들에게 자꾸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외부자의 시각에서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며 트라우마의 직접적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역전이, 즉 그 트라우마에 빠져들면서 오히려 그 자신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층조사연구에서 연구자가 취해야 할 자세는 조사대상자와의 완전한 공감, 일치가 아니라 라카프라가 말하는 '공감적 불안정(empathetic unsettlement)', 카이야 실버맨이 말하는 '이종요법적 동일시(heteropathic identification)'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만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한(조선)민족의 통일을 만들어가는 '민족적 협력 창출'의 미래를 여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민족공통성이라는 패러다임 위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독특함이 있다. 그것은 민족공통성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를 "차이-접속-공명"을 통해서 새로운 한(조선)민족의 민족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소통으로 바꾸는 생성적 연구이자 미래의 한(조선)반도의 규칙을 공통을 창출해 가는 미래기획적인 연구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민족공통성은 "민족고유문화의 동질성을 찾아내어 민족정체성의 정도를 밝히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민족고유문화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빗겨져 나가는 것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서로 어긋나는 것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찾아냄으로써 그 독특성을 평가하고 그 '차이'와의 접속을 통해서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문화적 요소들(각각의 가치-정서-문화적 형태들)을 찾아내고 그런 차이들의 공명을 통해서 생성될 수 있는, 그리하여 미래기획적으로 보편성을 가진 민족문화의 형

태들을 생성할 수 있는 문화형태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다.<sup>82)</sup>

---

82) 박영균,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 『시대와 철학』 22-2, 2011, 130쪽.

## 토론 요지

이병수 선생의 「코리언의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비교연구」와 박민철 선생의 「코리언(Korean)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정체성 비교연구」에 대한 토론

반 병 료 (한국외대 사학과)

### 1. 연구의 의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조선)민족의 민족정체성’과 ‘거주국의 국민정체성’의 이중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긍정적인 소통과 공존의 가능성(잠재력)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의 새로운 학술적 논의의 장을 연 연구성과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민족주의적 접근방식과 탈민족주의의 접근방식의 어느 하나가 아닌 그 중간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에 동의한다.(이병수) 민족주의적인 입장의 폐쇄성이나 배타성에서 벗어남과 아울러 탈민족주의의 해체적인 비역사성에 함몰되지도 않는 균형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제를 미래 지향적, 개방적, 탈한반도적 시각을 취하고 있다. 민족과 민족정체성의 개념을 한반도를 표본, 기준, 중심으로 삼으려는 대한민국 독점주의나 독단을 비판하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역사적으로) 폭넓은 개념을 확보하고자 했다.(박민철)

연구방법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정체성을 구분하여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족정체성의 다양성, 복합성, 중층성을 밝히고, 한반도 내외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거주국의 정책 등에서 그 차이를 적절하게 잘 설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성과를 근거로 하여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관계에 있어서 공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재중조선족과 재러고려인의 경우와 대립,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일조선인과 탈북자의 경우를 추출해내고 이 양자가 부(-)가 아닌 정(+)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이병수)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에 내재해 있는 국민개념과 민족개념에 대한 상반된 아비투스(Attitude)와 그에 따른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통과 불통의 양면적 성격을 밝혀내고 있다. 그리하여 “코리언들이 각 지역에서 이룩한 차이와 문화변용을 바탕으로 이 ‘차이’들이 상호교감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된 새로운 ‘민족공통성’을 형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병수)

그리하여 정책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정권적 차원에서 취하게 될 이른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공통질문:

설문조사에서 조사하였을, 이주시기(세대), 국적 소유 여부, 연령,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분석결과에서 빠진 이유가 있는가? 구소련지역의 경우, 조사지역은? (러시아 연해주,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재미한국인을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이민온 사람들에 한정한 결과 재미한국인에 대한, 그리고 다른 국가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민족정체성에 관해 비교한 분석에서 유의미하지 않거나 적절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된다.(예: '조국'과 '모국'에 대한 재미한국인의 인식)

이와 관련하여 재미한국인의 경우, '조국'과 '모국'의 의미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조국' 선택과 관련된 문항만을 물어본 근거는 무엇인가?(\*'조국'으로서의 'motherland'와 '국민'으로서의 'nation'?)

### 3. 박민철 선생의 논문에 대한 질문

거주국가의 소수민족정책과 함께 민족구성도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류민족과의 “다름의 인식”에서 양국가의 소수민족정책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중조선족과 제일 조선인이 각각 84.5%, 84.4%로 높게 나오는 것은 그 민족구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중국은 55개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족이 절대적으로 많아 다른 소수민족들을 잘 보이지 않는다.(특히 동북지방의 경우).

이는 조선인외에 소수민족이 없다시피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재중조선족이 한족에 대하여, 제일조선인이 일본인에 대하여 ‘다름’을 크게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로서 여러 민족과의 접촉이 많아 상대적으로 이러한 ‘다름’을 느끼는 것이 적지 않은가 한다.

‘자신이 Korean임을 알리고 싶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로부터 ‘민족적 소속감’의 정도를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문조사의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고 본다.(제1위의 재중조선족은 75.8%, 제4위의 재미한국인 63.5%). 제1위, 제2위가 재중조선족, 제일조선인이고, 제3위, 제4위가 재러고려인, 재미한국인으로 나타난 분석결과서 굳이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중국과 일본은 같은 황인종의 국가이고, 러시아와 미국은 백인종 국가인 것이 고려될 여지는 없는가.(외형상 구분의 난이도 차이. 백인종 국가의 경우 쉽게 드러나므로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다)

‘신체적 정체성’에서 재러고려인들이 1937년과 1990년대의 두 번의 이주에도 불구하고 “생활풍습적 기반들이 크게 사라지지 않”은 “독특한 양상”을 보인 이유로 “자신들의 이주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지켜”나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는 소련의 민족문화정책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4. 이병수 선생의 논문에 대한 질문

“스스로를 칭하는”의 의미, ‘조선족’이나 ‘고려인’은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었다기 외부에서 부쳐진 것인 아닌가?

재미한국인의 경우, "Korea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어 구별되지 않는다. "Korean"과 "Korean-American"이라고 답변할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재중 조선족의 경우,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항상 공존,조화할 수 있는가? 중국과 한반도의 국가간에 대립과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예, 역사갈등, 영토분쟁), 이러한 공존과 조화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